

### Ⅲ. 부 여

1. 부여의 성립
2. 부여의 성장과 대외관계
3. 부여의 정치와 사회
4. 부여의 문화

### Ⅲ. 부 여

#### 1. 부여의 성립

##### 1) 부여사의 성격

夫餘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 494년까지 북만주지역에 존속하였던 濊貊族系의 국가였다. 흔히 부여족이라 일컬어지는 예맥족의 한 종족은 일찍부터 송화강유역을 중심으로 西團山文化라는 선진적인 문화를 영위하면서 松嫩平原 및 松遼平原을 개척하였고, 우리 역사상 고조선에 이어 두번째로 국가체제를 마련하였다.

《三國志》東夷傳 부여조에 “매우 부유하고 선조 이래 남의 나라에 패해본 일이 없었다”라는 기사처럼, 부여는 그 경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강한 통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중앙에는 王이 존재하여 귀족과 관리들을 거느리고 통치하였으며, 종족적 기반을 토대로 한 大加들은 왕이 살던 곳의 사방에 거주하여 연맹체적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

부여족은 긴 존속기간 동안 대체로 중국의 왕조들과는 빈번한 교류를 하면서 우호관계를 지속하였고, 반면에 북방 유목민족이나 고구려와는 대립하면서 국가적 성장을 하였다. 또한 주변의 東沃沮나 挹婁 등을 臣屬시킴으로써 동북지방 역사발전의 주동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산업에서도 기후와 토질에 알맞는 농업을 위주로 하면서 목축을 겸하였고, 말·玉·담비(貂)·구슬(美珠) 등의 특산물을 漢民族에 수출하고 錦繡 등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정치체제의 진전은 그리 빠른 편은 아니었다. 특히 주변에는 한의 현도군을 비롯하여 고구려·읍루·鮮卑 등이 있어서 이들 주변 정치세력의 消長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漢代 이후 부여는 북방의 유목민과 남방의 성장하는 고구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도 중국과 부단한 관계를 가지면서 국가로서 성장을 지속해 나갔다. 그러나 부여는 계속해서 서쪽에서 성장했던 鮮卑 慕容氏의 세력과 남방의 고구려의 압력을 받았다. 따라서 加耶와 마찬가지로 국가발달이 순조롭지 못하여 연맹체적 단계에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전환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다.

부여 왕조의 구체적인 변천상은 잘 알 수 없지만, 역사가 오래 지속된 만큼 주변세력의 영향을 받아 내부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중심지에도 일련의 변동이 있었다. 이는 부여에 대한 표기가 시기와 사료에 따라 北夫餘, 부여, 東夫餘 등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대체로 부여는 지금의 만주 松花江유역을 중심으로 존재하였는데, 거기에서 동부여가 나오고, 그 동부여에서 고구려의 지배층이 된 朱蒙집단(桂婁部 왕실)이 나왔다. 주몽집단은 압록강 일대에 진출하여 卒本夫餘 즉 고구려를 세웠다. 이에 압록강유역에 먼저 와 살고 있던 주민의 일부가 다시 한강유역으로 남하하여 백제 건국의 주도세력이 되었다. 이들도 부여족이었으므로 백제는 그 왕실의 성씨를 扶餘氏라고 했고, 부여의 건국 시조인 東明王을 제사지내는 사당인 東明廟를 설치하였다. 또한 백제는 6세기 중반 자신들이 세운 국가의 이름을 南扶餘라고 하기도 했다.

이처럼 부여는 고구려·백제 등의 예맥족계 국가들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 모두 부여의 ‘別種’<sup>1)</sup>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최근 가야지역에서 나오는 북방 유목민족이나 부여계의 유물들을 보건대, 부여 역사의 발전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나 주민이동 등이 한반도 남부에까지 미친 영향도 결코 가벼이 볼 수는 없을 듯하다. 나아가 騎馬民族 일본정복론에서는 일본황실의 시조 神武의 東征전설이 부여의 건국설화를 그대로 옮긴 주몽전설과 동일내용이라고 역설하리만치<sup>2)</sup> 부

1) 高句麗가 夫餘의 별종임은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條에 기록되어 있고, 百濟가 夫餘의 별종임은 《三國史記》 권 23, 百濟本紀 1, 始祖 溫祚王條와 권 25, 百濟本紀 3, 蓋鹵王 18년조에 蓋鹵王이 北魏에 보낸 국서에 보인다.

2) 江上波夫, 《騎馬民族國家》(中央公論社, 1967), 173~187쪽.

여의 개국설화는 고대 동방 제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고구려를 승계한 渤海 역시 大祚榮이 “부여·옥저·변한·조선의 땅과 바다 북쪽 여러 나라의 땅을 완전히 장악하였다”고 하여<sup>3)</sup> 그 정신적 자산을 부여에서 찾고 있다. 한편 《武經總要》에서는 발해가 “부여의 별종으로서 본래 예맥의 땅이었다”고 하여,<sup>4)</sup> 발해가 고구려와 백제처럼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로써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부여 지배층의 분화와 발전 속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 세력집단에 의해 고구려와 백제, 나아가 발해가 건국되었다는 점에서, 부여사는 우리나라 고대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淵源을 이루고 있고, 부여족은 한국민족을 형성한 주요 종족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부여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그간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최근에는 고고학적 자료의 증가에 따라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그 또한 중국학자들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현재 모든 중국학자들은 부여사를 중국 동북사의 일부로 볼 뿐이지 결코 한국사의 일부로서 부여를 치칭하지는 않는다.<sup>5)</sup> 따라서 한국 고대사의 올바른 복원을 위해서는 부여사 연구 또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다.

## 2) 부여의 기원과 건국설화

### (1) 부여 명칭의 기원

‘夫餘’라는 이름은 《史記》 권 129, 貨殖列傳에 “燕이 북으로 烏丸·부여와 인접했다”는 기록에 처음 보인다. 부여의 명칭에 대해서는 《사기》 이전 문헌인 《山海經》에 나오는 ‘不與’라는 표기를 부여로 보거나,<sup>6)</sup> 《逸周書》王會篇에

3) 《新唐書》 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4) 《武經總要》前集 16 下.

다만 이 책이 얼마나 사료적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宋基豪,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1995, 37쪽).

5) 부여사를 중국 동북사의 일부로 보는 대표적 저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傅郎雲·楊陽, 《東北民族史略》(吉林人民出版社, 1983).

孫進己·馮永謙, 《東北歷史地理》1(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佟冬 編, 《中國東北史》(吉林文史出版社, 1987).

6) 리지린은 《山海經》大北荒經의 “有胡不與之國”이라는 구절의 ‘不與’를 扶餘로

나오는 ‘符婁’가 부여라는 설<sup>7)</sup> 및 李巡의 《爾雅》釋地和 邢昺의 《論語注疏》에 나오는 ‘鳧臯’가 부여라는 설<sup>8)</sup> 등이 있으나 사실 어떠한 명확한 논증은 없다. 또한 《尚書》周官篇의 “武王이 이미 東夷를 정벌하니 肅愼이 와서 朝賀하였다”는 구절에 대해 孔安國傳에는 “海東의 여러 오랑캐 駒麗·扶餘·馱狔 등은 武王이 商을 이김에 모두 길을 통하였다”라고 하여 부여가 무왕대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안국전 자체가 남북조시대에 쓰여진 僞書라는 주장도 있고, 공안국전의 내용이 무왕대의 사실로 믿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부여에 관한 초기 기록으로는 신빙할 수 없다.<sup>9)</sup> 따라서 막연히 부여는 기원전 119년 한나라가 匈奴의 左地를 평정한 후부터 기원전 108년 이른바 漢四郡을 설치하기 전의 어느 시기에 출현했다고 보기도 한다.<sup>10)</sup>

부여라는 이름의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부여의 원뜻이 밝(神明)에서 유래하여 개발→滋蔓→평야를 의미하는 ‘벌’(伐·弗·火·夫里)로 변화한 데서 연유하였다는 설이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sup>11)</sup> 그 근거는 부여의 중심지역이 송화강 연안의 동북평원 일대이고, ‘벌’이나 ‘부리’가 서라벌·古沙夫里 등 삼국시대의 지명 어미에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여족의 일파가 세운 고구려의 句麗라는 명칭이 ‘큰 고을’ 또는 ‘높은 城’을 의미하는 ‘忽’·‘골’·‘溝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관련되어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sup>12)</sup> 이와 달리 부여는 사슴의 뜻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다.<sup>13)</sup> 《資治通鑑》의 부여 멸망기사에 부여의 원 거주지로 나오는 ‘鹿山’이 만주어에서 사슴(鹿)을 뜻하는 말인 ‘puhu’와 몽고어에서 사슴을 뜻하는 ‘pobgo’라는 말에서 비롯하였

보았다. 그러나 不與와 扶餘를 같은 음으로 보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7) 何秋濤는 符는 夫餘를 말하며 〈王會〉의 濊人이라고 보았다(何秋濤, 《周書王會篇箋釋》 권 下).

8) 《字匯補》에는 “鳧臯는 동방의 나라 이름이며 곧 夫餘를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9) 盧泰敦,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國史館論叢》 4, 國史編纂委員會, 1989), 38쪽.

10) 孫進己, 《東北民族源流》(黑龍江人民出版社, 1987; 林東錫 譯, 東文選, 1992, 232쪽).

11) 崔南善, 《兒時朝鮮》(《六堂崔南善全集》 2, 玄岩社, 1973, 159쪽).

12) 노태돈, 〈삼국의 성립과 발전〉(《한국사특강》, 1990, 서울大 出版部), 52쪽.

13) 白鳥庫吉, 〈濊貊民族の由來を述べて, 夫餘高句麗及び百濟の起源に及ぶ〉(《史學雜誌》 45-12, 1934; 《白鳥庫吉全集》 3, 1970, 516쪽).

다는 주장이다.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鹿의音が 'fu'로서 '夫'와 같은 음이라는 주장도 있다.<sup>14)</sup> 이 밖에 濊人의 '濊'는 '夫餘' 두 자의 합音으로 부여는 '예'에서 왔다는 주장<sup>15)</sup>이 있고, 최근 한 설은 부여는 강 河流의 이름에서 온 것으로서 嫩江 중류 동측에 烏裕爾河가 있는데 이 강을 金代에 蒲與라 칭했던 점으로 보아, 부여는 '포여' 혹은 '오위르'의 同音異寫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6)</sup>

이들 논의를 살펴보면, 부여라는 명칭의 기원에 관해서는 대개 평원·강이름·산이름 등에서 유래했다는 지리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개별 주장 모두 나름의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나 분명하게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현재로서는 선비·烏丸 등 북방 유목민족의 종족명이 대개 그들이 원래 거주한 山名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sup>17)</sup> 부여가 처음에는 녹산에 거주했다는 사실과 이후의 역사인 발해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로 부여의 사슴을 들고 있는 점<sup>18)</sup> 등을 고려하면 부여의 명칭 또한 퉁구스어에서 사슴을 일컫는 buyu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 (2) 부여족의 기원

부여족의 기원에 관해서는 東夷族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가 渤海灣 일대에서 長春·農安지방으로 이동해서 부여를 건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sup>19)</sup> 그러나 건국전설을 보면 오히려 북방계통의 그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북쪽에서부터 송화강유역으로 남하한 세력에 의해서 부여가 건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기원전 1세기 중엽 후한 때의 학자 王充이 지은 《論衡》 吉驗篇이나 《魏略》 逸文에 의하면 이른바 동명신화는 다음과 같다.

14) 武國勳, 〈夫餘王城新探〉(《黑龍江文物叢刊》 4期, 1983).

15) 何秋濤는 “符는 곧 夫餘이고, 〈王會〉의 ‘濊人’이다. …‘濊’는 곧 ‘夫餘’ 두 자의 합音이다”라고 하였다(何秋濤, 《周書王會篇箋釋》 권 下).

16) 이 주장에서는 烏裕爾河유역을 濛離國(또는 蒙離國)의 원거지로 보고 있다(佟冬 編, 앞의 책, 337쪽).

17)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18) 《新唐書》 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19) 李亨求, 〈韓國民族文化의 시베리아기원설에 대한 再考〉(《東方學志》 69, 1990).

옛날 북방에 橐離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王의 시녀가 임신 하였다. 王이 그녀를 죽이려 하자, 시녀는 “달걀만한 크기의 기운이 나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임신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뒤에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王이 그 아이를 돼지우리에 버리자 입김을 불어주어 죽지 않았고, 마굿간에 옮겨 놓았으나 말도 입김을 불어주어 죽지 않았다. 왕은 天帝의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어머니에게 거두어 기르게 하고는, 이름을 東明이라 하고 항상 말을 사육토록 하였다. 동명이 활을 잘 쏘자, 왕은 자기 나라를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죽이려 하였다. 이에 동명은 달아나서 남쪽의 掩淩水에 당도하여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서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동명이 물을 건너간 뒤, 물고기와 자라가 흩어져 버려 추격하던 군사는 건너지 못하였다. 동명은 부여지역에 도읍하여 왕이 되었다. 이런 고로 北夷에 夫餘國이 있게 되었다(《論衡》 吉驗篇).

이 설화에 따르면 부여의 시조는 東明으로 그는 본래 北夷 橐離<sup>20)</sup>국왕의 시녀가 日光에 감응하여 출생한 자로서, 성장하면서 神異한 바가 많았으므로 왕에게 용납되지 못하고 남쪽으로 달아나 掩淩水<sup>21)</sup>를 건너 부여에 와서 왕이 되었다고 한다. 이 설화는 건국자가 일광에 의해 感情出生했다고 하는 몽고·만주에 널리 퍼져 있는 이른바 ‘感精型’ 신화의 요소를 갖고 있으며, 또한 물고기와 자라떼가 다리를 이루어 大河를 건너게 했다는 설화상의 모티브는 북방의 풍토<sup>22)</sup>에서 생겨날 수 있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물고기의 등을 다리로 해서 바다나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특히 북아시아의 어렵·수렵 제민족 사이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북아시아지역에서는 얼음이 어는 겨울이 가장 교통이 편리한 때인데, 봄이 되면 얼음이 녹아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풍토 속에서 생겨났을직한 설화로 생각된다.<sup>23)</sup> 결국 동명신화는 부여와 고구려인이 북아시아의 풍토적 현상을 배경으로 하여 그것으로부터 서서히

20) 橐離는 《魏略》에는 高(橐)離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의 高夷, 후래의 高句麗의 異寫임이 분명하여 ‘高離’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21) 이들 강 이름은 글자형이 비슷하여 轉寫의 과정에서 혼동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魏書》에는 施掩水, 《後漢書》에는 掩淩水, 《梁書》에는 淹淩로 나오는데 이는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淹利大水와 같이 ‘큰 물’을 의미하는 말로 생각되며, 松花江 또는 그 지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22) 神이 大河를 건넜다는 고사는 역대 黑龍江 민간인들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한다(傅郎雲·楊暘, 앞의 책, 37쪽).

23) 三上次男, <「魚の橋」の話と北アジアの人人>(《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1966), 483~489쪽.

발전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설화의 기본 줄기는 왕이 고리국(탁리국)에서 업표수를 거쳐 부여까지 망명하여 도움을 청하였다는 이른바 부족의 이주전설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시조를 정복족장으로서 天帝의 아들이나 日月의 아들로 여기고, 자기들을 天神族 또는 신성족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군신화 이래 신라의 석탈해·박혁거세설화나 가야의 김수로왕설화에도 보인다. 이들 설화의 기본 내용은 유이민 출신이 왕이 되고 왕비는 대개 토착족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인데, 시기상 대개 고대국가 초기 단계의 국가건설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sup>24)</sup> 부여의 동명설화도 동명으로 대표되는 집단이 고리국에서의 세력갈등을 피하여 남하·망명함에 따라 송요평원의 先住 濊族들이 이들 동명집단을 구심점으로 하여 국가를 형성하였음을 시사한다. 즉 부여의 건국자들은 ‘고리’라고 이름하는 송화강 북쪽 어느 곳에서 남하하여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제1송화강과 제2송화강이 만나 이루는 嫩江지역이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했음이 주목된다. 松嫩平原, 즉 黑龍江省의 三肇지구(肇源·肇州·肇東)와 嫩江 이서지방인 扶餘·前郭·大安·鎮賚와 乾安 등은 西周시대 이래 白金寶<sup>25)</sup>·漢書<sup>26)</sup>·望海屯<sup>27)</sup> 등의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다. 이들 문화유형은 시기상 백금보-한서 하층문화와 망해둔-한서 상층문화로 구분이 되지만 동일한 문화계열로 볼 수 있다.

24) 金哲垸, 《韓國古代國家發達史》(春秋文庫, 1975), 53쪽.

25)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 〈黑龍江省肇源白金寶遺址第一次發掘〉(《考古》4期, 1980).

郝思德, 〈白金寶文化初探〉(《求是學刊》5期, 1982).

譚英杰, 〈白金寶遺址〉(《黑龍江文物叢刊》3期, 1983).

賈偉明, 〈關於白金寶類型分期的探索〉(《北方文物》1期,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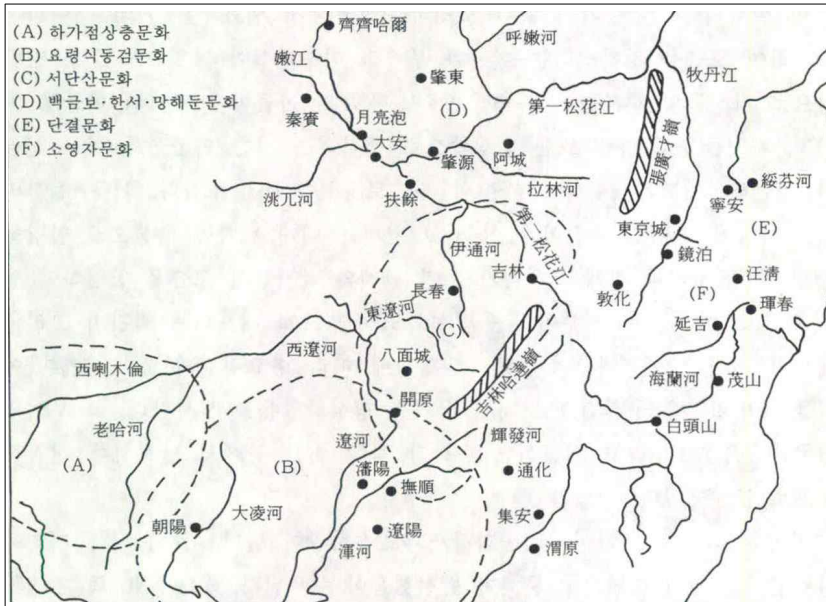
26) 漢書문화는 I·II기로 나뉘어지는데 동일 문화가 계승발전한 것으로서, 한서 I기(下層)문화와 백금보문화가 같은 시기이다. 연대는 상한이 西周 중기이고 하한은 한서 II기(上層)에서 철기가 나와 전국시대 晩期에서 漢시기로 볼 수 있다(吉林大學歷史系考古專業·吉林省博物館考古隊, 〈大安漢書遺址發掘的主要收穫〉, 《東北考古與歷史》1, 1982 및 都興智, 〈試論漢書文化和白金寶文化〉, 《北方文物》4期, 1986).

27) 丹化沙, 〈黑龍江肇源望海屯新石器時代遺址〉(《考古》10期, 1961).

黑龍江省博物館, 〈嫩江下游左岸考古調查簡報〉(《考古》4期, 1960).



〈그림 1〉 중국 동북지방 고대문화 분포도



춘추시대 이전으로 비정되는 백금보-한서 하층문화의 경우 반지하식 주거지와 土塋堅穴式 매장을 특징으로 하며 三足器(鼎·鬲)·항아리(壺)·물동이(盆·罐)·잔(杯) 등의 단단한 토기와, 돌도끼·돌칼 등 많은 마제석기와 일정 수의 골기도 사용하였다. 이는 경제생활에서 농업과 목축을 병행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한서 상층-망해둔문화는 연대가 이미 戰國에서 西漢시대에 이르며, 분포범위는 한서 하층보다 넓다. 주거지에서는 좁쌀이 나와 농경의 존재를 시사해주며, 한서 上層遺址에서는 비록 청동단검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검자루맞추개들이 나와 이 지역에서도 청동단검이 응용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sup>28)</sup> 製陶業도 상당히 발전하여 생활용구와 생산공구가 모두 반출되고 있으며, 그 중에 彩繪와 紅陶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철기도 나오는데 주로 구멍이 있는 斧와 刀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甲片

28) 陳相偉・李殿福 主編,〈漢書遺址〉(《大安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1982), 26~30頁.

등의 존재는 군사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물고기 비늘과 토제 그물추의 대량 존재는 어업이 발달하였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sup>29)</sup>

이처럼 많은 유물이 중국 한족의 선진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고 그 연대가 서한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문화를 담당한 족속은 당시 송누평원 일대에서 활약하던 부여족으로 보는 설이 일반적이다.<sup>30)</sup> 다만 그것을 부여 초기문화로 보느냐,<sup>31)</sup> 아니면 부여 건국설화에 나오는 ‘고리국’의 문화로 보느냐의<sup>32)</sup>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문헌에서 보면 예맥족이 하나의 단일한 종족명으로 등장한 것은 대개 춘추시대 이후의 일이다.<sup>33)</sup> 그런데 백금보-한서 하층문화는 춘추시기보다 빠르고, 비록 다같은 예맥족의 문화이기는 하지만 눈장 이남의 吉林 일대를 중심으로 발전한 서단산문화<sup>34)</sup>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어, 백금보문화는 貊人의 문화이고 서단산문화는 濊人의 문화로 보기도 한다.<sup>35)</sup> 이 주장은 백금보-한서 하층문화가 하가점 상층문화와 유사함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대개 하가점 상층문화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東胡族 계통 외에 貊族 계통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이 청동기시대에 북쪽 초원지대를 통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설<sup>36)</sup>을 염두에 둘

29) 吉林大學歷史系考古專業·吉林省博物館考古隊, 앞의 글.

陳相偉·李殿福 主編, 위의 책.

30) 눈장 일대의 문화에 대해서는 대개 한서 하층문화의 경우 그 담당자를 예맥족으로 보고, 한서 상층문화는 부여족의 문화라고 보고 있다(陳相偉·李殿福 主編, 위의 책, 25~30쪽). 혹자는 한서문화 대신 백금보문화를 부여족의 先世인 예맥족의 문화로 보기도 한다(孫秀仁, 〈黑龍江歷史考古述論〉上, 《社會科學戰線》1期, 1979).

31) 李殿福은 한서 상층문화를 부여의 早期문화로 보고 있다(李殿福, 〈漢代夫餘文化鄒議〉(《北方文物》3期, 1985).

32) 干志耿은 백금보와 한서 하층을 早期에 설정하고, 망해둔과 한서 상층을 中期로, 濱縣 老山頭 및 望奎 廂蘭頭를 晚期에 설정하여 이들 문화 가운데 중·만기는 이미 전국-양한시기에 진입하였으므로 이는 고리문화의 존재시기와 일치한다고 보아 망해둔-한서 상층문화를 고리문화로 보고 있다(干志耿, 〈橐離文化研究〉, 《民族研究》2期, 1984).

33) 전국시대의 저술로 보이는 《管子》小匡篇에 “桓公曰… 北至於狐牛山戎穢貊”이라고 ‘穢貊’이 등장한 이후, 《史記》朝鮮列傳의 “諸左方王將居東方 直上谷以往者東接穢貊朝鮮” 등 전국시대 이후에는 濊와 貊이 ‘濊貊’으로 등장하고 있다.

34) 劉景文, 〈西團山文化墓葬類型及發展序列〉(《博物館研究》1期, 1983).

董學增, 《西團山文化研究》(吉林文史出版社, 1994).

35) 孫進己·張志立, 〈穢貊文化的探索〉(《遼海文物學刊》創刊號, 1986).

때 이 주장은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비록 하가점 상층문화와 백금보문화 및 遼寧 동북부의 문화들이 매우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동일유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는 동호·산융·예맥 등 諸族이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그 원류를 따진다면 서로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해주는 현상일 뿐이기 때문이다.<sup>37)</sup>

어쨌든 한서 상층-망해둔문화는 그 시기가 부여의 명칭이 처음으로 나오는 《사기》단계보다는 빠르다. 따라서 이는 마땅히 부여 이전의 부여와 관련된 종족이나 국가의 문화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지역이 송화강 중하류와 눈강 하류 일대에 주로 분포하므로 이는 북부여의 先世인 濊貊族 중 한 支派의 문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백금보-망해둔문화 이남 지역에 분포하는 서단산문화가 문화특성상 그 위 지역의 문화와 차이점을 보이다가, 기원전 4~3세기를 전후하여 토광목곽묘와 중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유물이 나오는 등 두 문화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논형》에 나오는 부여 건국설화와 부합하는 면이 많다고 본다.

### (3) 부여의 선주민문화와 한대 부여문화

백금보문화가 존재한 같은 시기에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기원전 7~3세기까지로 비정되는 청동기문화로서 西團山文化가 있다.<sup>38)</sup> 이 문화의 성격과 족속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여 및 그 先世문화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 문화는 제2송화강을 중심으로 하여 길림시 서단산·長蛇山·兩半山·猴石山·星星哨와 土城子 등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 문화의 분포범위는 남북으로 제1송화강 이남, 張廣才嶺 이서와 柳河·휘발하 등 길림 哈達嶺 이북지구 에 이른다. 이 문화의 담당 족속문제에 관해서는 종래 숙신설과 예맥설이 있었으나 지금은 예맥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sup>39)</sup>

36) 황철산, 〈고조선의 종족에 대하여〉(《고고민속》 1기, 1963).

——, 〈예맥(濊貊)족에 대하여〉(Ⅰ)·(Ⅱ)(《고고민속》 2기·3기, 1963).

37) 孫進己, 앞의 책, 222·235~236쪽.

38) 董學增·李樹田, 〈談略西團山文化的族屬問題〉(《東北師大學報》 2期, 1984).

李健才, 〈關於西團山文化族屬問題的探討〉(《社會科學戰線》 4期, 1985).

董學增, 앞의 책.

서단산문화의 대표유적인 서단산 석관묘군은 하나의 씨족공동묘지로서 마제돌도끼·반월형석도·끌·갈판 등의 농업생산 도구가 보편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토기는 모두 모래가 섞인 삼족기(鼎·鬲)·시루(甗)·물동이(罐)·굽접시(豆)·鉢 등이 나오고 있다. 이는 《삼국지》부여조에 “(토지가) 오곡 농사에 적합하다”는 것과 “음식을 먹는 데에는 俎豆를 사용한다”는 내용과 서로 부합한다. 한편 돼지뼈와 어망추가 많은 것으로 보아 농업·가축사육·漁獵 경제의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sup>40)</sup> 이 서단산문화는 전성기인 천년기 중기에는 騷達溝 평정산의 山頂大棺처럼 대형 석관이 산정에 단독으로 부장되고, 銅斧나 刀子 등 청동기가 17점이나 발견될 정도로 한 지역 首長의 권한이 상당히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단산문화 晩期에 속하는 장사산<sup>41)</sup> 및 토성자<sup>42)</sup>나 楊屯 大海盟<sup>43)</sup>단계(기원전 3~2세기)에 이르면 더욱 뚜렷해지고 묘제도 석관묘에서 토광묘로 교체되면서 철기가 부장되게 된다.<sup>44)</sup> 대표적 서단산문화 후기(기원전 4~3세기)유적인 토성자·양둔 대해

39) 서단산문화의 중심 분포지역은 송화강 중류로서 땅이 비교적 平闊하며 5곡 농사에 적합하다. 이것은 《後漢書》에 기재된 “동이의 지역에서 가장 평창하고 오곡에 적합하다”는 기재와 들어맞는다. 서단산문화 유형은 대개 반지하 혹은 석축으로 주거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길림시 東團山 일대에서 漢과 한 이전의 유지 중에 대략 원형을 나타내는 土城이 발견되고 있다. 이 점은 부여가 “圓柵으로 성을 쌓고 궁실·창고·감옥이 있다”는 기재와(《後漢書》 권 85, 列傳 75, 東夷夫餘國) 부합한다. 따라서 서단산문화는 예족, 즉 부여 선주민의 문화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 같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리병선, <암록강 및 송화강중상류 청동기시대의 문화와 그 주민>(《고고민속》 3기, 1966).

李健才, 위의 글.

정상석, 《西團山文化和 初期扶餘》(東亞大 碩士學位論文, 1996).

40) 王亞注, <吉林西團山子石棺墓發掘記>(《考古》 4期, 1960).

東北考古發掘團, <吉林西團山石棺墓發掘報告>(《考古學報》 1期, 1964).

41) 장사산 촌락유적은 산 경사지의 방어적 성격을 띤 촌락으로, 5채 안팎의 가옥이 2~3m 거리로 배치되어 7개의 세대공동체가 한 고장에 자리잡은 원시공동체 말기의 촌락공동체였다(연구가 있다(황기덕,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사회관계> 2, 《조선고고연구》 4, 1987, 4~6쪽).

42) 吉林省博物館, <吉林江北土城子古文化遺址及石棺墓>(《考古學報》 1期, 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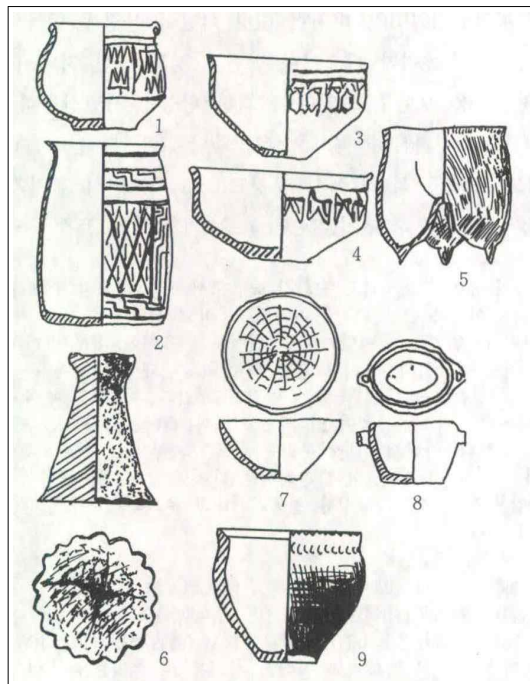
43) 吉林市博物館, <吉林永吉楊屯大海盟遺址>(《考古學集刊》 5, 1987)

吉林省文物工作隊, <吉林永吉楊屯遺址第三次發掘>(《考古學集刊》 7, 1991)

44) 장사산유적에서 발굴된 15기의 주거지 가운데는 구조가 복잡하고 유물이 풍부한 것과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유물도 매우 적은 것이 있다. 이것은 이미 이 당시(기원전 5~3세기)에는 사유재산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빈부의 차이가 생

맹·농안 田家坨子유적<sup>45)</sup> 등에서는 물동이·굽접시·사발(碗) 등의 토기가 나왔고 묘제 또한 토광목곽묘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한서 상층-맹해둔문화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조금 후대인 부여 초기단계의 것으로 비정되는 길림시 泡子沿前山유지<sup>46)</sup>의 상층 퇴적층과 백금보문화지역에 가까운 榆樹縣 老河深유적 출토토기와도 동일하다(〈그림 2〉, 〈그림 3〉 참조).

〈그림 2〉 백금보-한서문화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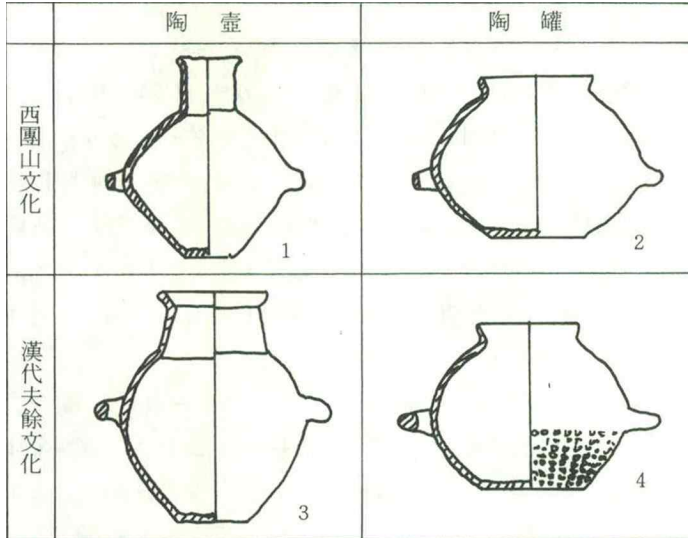
1~2. 漢書Ⅰ期, 3~5. 白金寶문화, 6~9. 漢書Ⅱ期

겨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토성자유적(기원전 3~2세기)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져 발굴된 24기의 석관묘에서는 만수에 달하는 무덤들에서 부장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吉林省文物工作隊, 〈吉林猴石山遺址及墓群發掘報告〉, 《考古》2期, 1980 및 吉林省博物館, 앞의 글).

45) 吉林大學歷史系 考古專業, 〈吉林農安田家坨子遺址試掘簡報〉(《考古》2期, 1979).

46) 吉林市博物館, 〈吉林市泡子沿前山遺址和墓葬〉(《考古》6期, 1985).

〈그림 3〉 서단산문화 및 부여문화 토기



1. 長蛇山, 2. 星星哨, 3. 孢子沿前山, 4. 東團山.

포자연전산유형은 지역분포가 서단산문화와 기본적으로 중첩되는데, 이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길림지구의 서단산문화를 직접 승계한 초기 철기문화라고 볼 수 있다. 토기는 주로 항아리·물동이·굽접시·발 등이 항상 보이고, 가로로 붙인 橋狀耳와 꺾꼭지형 손잡이가 유행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서단산문화의 주요한 특징과 淵源을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수 노하심 中層文化에서 발견된 유물은 주로 墳墓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부장토기는 거친 夾砂陶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주로 항아리·물동이·굽접시·발 등이며 가로로 붙인 교상이와 꺾꼭지형 손잡이가 있어 포자연전산유형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이들 포자연전산과 노하심문화가 모두 직접적으로 동일지점에서 서단산문화를 파괴한 층위관계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또한 포자연전산과 노하심유적에서는 모두 서단산문화에서는 보이지 않는 중국 漢代의 특징을 갖고 있는 철제 鏹·斧·鍤·鎌 등 농업생산

도구가 발견되었다.<sup>47)</sup> 따라서 이 두 유형은 마땅히 서단산문화를 직접 계승한 한대 부여의 문화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포자연전산과 유수 노하심문화유형은 그 분포가 북으로는 송화강 북안의 흑룡강성 肇源縣 望海屯유지에 이른다. 출토 토기의 재질과 기형 및 토광목곽묘라는 매장습속에 있어서도 한서 상층-망해둔유형과 동일하다. 이들은 중국 한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문화의 영향 아래에서 한대 부여시기의 지배집단의 전형적 토광목곽묘가 帽兒山 등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sup>48)</sup> 이는 제1송화강과 눈강 일대 및 제2송화강지역이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었고 주민집단도 어느 정도 동일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정황은 한서 상층-망해둔문화가 고리국의 문화이고, 그들 주민들이 제2송화강 중류로 남하하여 지금의 길림을 중심으로 한 ‘穢地’에서 서단산문화를 누리던 부여 선주민과 융합하여 부족국가 부여를 건립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49)</sup> 《삼국지》 권 30, 魏書 東夷傳에 濊人是 이전에 이미 국가를 건립하였으며, “그 도장의 문구가 ‘濊王之印’이라 했고, 나라에는 ‘故城’이 있는데 이름을 ‘濊城’이라고 했다. 따라서 동명은 ‘스스로를 일러 亡人’이라 했는데 아마도 그러한 것 같다”라고 한 것은 바로 동명의 남하와 그에 따른 고리국과 부여가 일정 기간 병존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성은 길림시 송화강 동안의 龍潭山山城 혹은 東團山南城子 일대에 비정되고 있으므로<sup>50)</sup> 그 위쪽에 존재한 한서 상층-망해둔문

47)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榆樹老河深》(文物出版社, 1987).

48) 토기와 묘제의 유사성이 있지만 유수 노하심유적이 부여의 유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노하심유적은 많은 부분에서 서단산문화와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透雕의 金飾牌라든지 火葬에 의한 매장방식 등 鮮卑(烏丸)계통의 양식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 좀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 유적이 부여의 영역내에 분포하고 있고 토기 등이 부여의 유적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한 점 등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嚴長錄, 〈扶餘의 遺蹟과 遺物에 對하여〉, 《民族文化의 諸問題》, 世宗文化社, 1994, 204~210쪽).

49) 백금보·한서 상층문화는 부여의 원류집단인 고리국의 문화로 보는 것이 요즈음 중국학계의 입장이다(干志耿, 앞의 글 및 孫進己·張志立, 앞의 글).

50) 李健才, 〈夫餘의 疆域和王城〉(《社會科學戰線》4期, 1982), 170~173쪽. 武國勳, 앞의 글.

화는 고리국의 문화일 가능성이 높다.<sup>51)</sup> 앞에서 보았듯이 서단산문화와 백금보문화는 토기 등의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한서 상충-망해둔문화와 서단산문화 후기단계의 묘제 및 유물은 기본적으로 같은 주민계통의 문화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일 시기에 병존한 부여 선주민의 문화로 여겨진다.<sup>52)</sup>

#### (4) 건국 연대

부여 건국의 연대에 관해서는 사서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 없다. 그러나 《사기》貨殖列傳에 나와 있는 전국 7웅의 하나인 燕에 대한 기사 가운데 고조선·진변과 함께 부여가 언급되어 있다. 이는 부여가 매우 선진적인 나라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삼국지》와 《후한서》에 나타나는 당시 부여의 문명정도를 살펴보면 그 기원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 엄밀한 의미의 건국도 고구려보다는 훨씬 앞섰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기원전 108년보다 이른 시기의 부여에 관한 분명한 문헌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기원전 195년에 중국은 遼寧·遼西 등 4군을 정하고, 기원전 128년에 蒼海郡을 두었다. 기원전 108년에는 樂浪·臨屯·玄菟·眞番 등 4군을 두었고, 이후에 옛 연의 땅인 동북지구 남부가 비로소 “북으로 烏丸·부여와, 동으로는 예맥·朝鮮·진변의 이로움을 이었다”고 하였다.<sup>53)</sup> 《사기》화식열전의 이러한 기록과 《漢書》地理志의 기사에서<sup>54)</sup> 부여의 명확한 실체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연’은 전국시대의 燕國이거나 또는 漢代の 燕地를 말한다. 기록에는 명확한 언급이 없지만, 연은 이미 북으로 오환과 인접했고 오환은 대략 한나라 초에 이름을 얻은 東胡族의 한 지파이므로, 이 연은 한의 연지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부여는 늦어도 西漢 초부터는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1) 최근 흑룡강성 濱縣 동쪽에서 ‘慶華古城’이 발견되었다. 1984년 조사시에 이 성은 부여보다 빠른 古城유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고유물과 방위상으로 보건대 이는 漢初에 남천한 ‘濊城’ 이전의 古夫餘의 先世인 ‘濊離國’의 故地로 보는 견해가 있다(王綿厚, 《秦漢東北史》, 1994, 175쪽).

52) 馬德謙, 〈夫餘文化的機個問題〉(《北方文物》2期, 1991), 18~24쪽.

53) 《史記》권 129, 列傳 69, 貨殖 烏氏 倮.

54) 《漢書》권 28 下, 志 8 下, 地理.



한편 《한서》王莽傳에 보면 왕망이 왕위를 찬탈하고 새로이 주변 나라의 印綬를 교체하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부여가 등장하고 있다.<sup>55)</sup> 이처럼 왕망의 건국 이전에 이미 한나라와 모종의 교류를 가진 것으로 보아 대체로 기원전 2세기경에는 부여국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기》화식열전에 나오는 조선과 부여는 진시황 때(기원전 246~210)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sup>56)</sup> 부여가 진시황 때에 고조선과 함께 존재한 나라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부여의 성립은 대체로 기원전 3세기 후반경으로 비정할 수 있다.

이것은 부여 선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족의 문화인 서단산문화가 기원전 3세기부터 이전의 돌널무덤에서 움무덤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정치집단의 출현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방증된다. 중국 동북지방의 경우 기원전 4~3세기를 지나면서 문화상의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매장양식이 돌무덤(고인돌, 돌널무덤)에서 움무덤으로 바뀌고 철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 구체적 계기는 물론 전국시대 말기의 변동기를 통해 들어온 중국문화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생각된다. 고조선지역에서도 이러한 선진적 중국문화의 영향으로 새로이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른바 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가<sup>57)</sup> 출현하면서 국가체를 형성하고 있다.<sup>58)</sup> 고조선 이동지역에서는 서단산문화단계를 이어 한대-부여문화라는 새로운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또 하나의 정치체가 성립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북쪽 고리국에서 주민집단이 이동하여 부여국을 건국한다는 설화와 부합되는 면이 많다. 따라서 이 단계부터 어느 정도 지배집단을 중심으로 초기 권력집단이 길림시지역에서도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5) 《漢書》권 99 上, 列傳 69 上, 王莽.

56) 《史記》권 129, 列傳 69, 貨殖의 烏氏倮조에는 진나라 시황제 때 오씨현의 ‘倮’라는 사람이 주변 나라들과 장사를 하여 큰 이득을 본 이야기를 전하는 중에 부여라는 명칭을 썼으므로 부여는 진시황 때(기원전 246~210)에 존재했다고 본다(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부여사〉, 《조선전사》 2, 1979, 118쪽).

57) 세죽리-연화보문화는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燕 昭王代)의 戰國 철기문화 및 기원전 3세기 말의 秦·漢교체기, 그 이후 기원전 2세기 초 무렵의 漢初 철기문화를 포괄하고 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편, 《조선고고학개요》, 1977, 139~143쪽).

58) 송호정, 〈요동~서북한지역에서 고조선의 국가형성〉(《역사와 현실》 21, 1996).

### 3) 부여의 영역과 지리적 특성

#### (1) 3세기 부여의 영역

부여는 역사가 오래 되었던 만큼 그 영역에서도 일련의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어 아직도 혼동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부여가 건국된 구체적 위치와 사방경역에 관해서는 班固의 서술 이전까지는 기재가 비교적 간략하였다. 다만 요동 등지를 말하면서 燕나라는 “북으로 오환·부여와 인접하였다”거나 “북으로 오환·부여와 사이를 두고 있었다”고 하였다. 반고 이후의 기록이지만 《삼국지》동이전 부여조의 기록에 따르면 “부여는 장성의 북에 있는데 현도로부터 천 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여 그 남쪽 경계는 漢의 동북장성 이북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59)</sup> 《삼국지》에서 말한 장성은 秦·한의 장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장성은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의 獨石口로부터 내몽고 圍場·赤峰·敖漢·奈曼·庫倫의 중부를 통과하여 동으로 彰武·法庫를 지나 開原·撫順 일대를 경과한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남하하여 압록강 및 조선 경내에 들어간다고 한다.<sup>60)</sup> 그러므로 부여는 지금의 법고·개원 이북에 존재하였던 셈이 된다.

부여의 위치에 관한 구체적 서술은 후한대부터 삼국시대(1~3세기)의 사실을 기록한 《후한서》와 《삼국지》에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후한서》권 85, 東夷傳 부여조에는 “부여국은 현도 북쪽 천 리에 있다. 남쪽으로는 고구려, 동쪽으로는 읍루, 서쪽으로는 선비와 접하며, 북에는 弱水가 있다. 땅은 사방 2천 리인데 본래 예의 땅이었다. …동이의 지역에서 가장 평평한 곳으로 오곡이 자라기에 알맞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지》부여조에는 《후한

59)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60) 李文信, 〈中國北部長城沿革考〉(《社會科學輯刊》3期, 1981).

文物編輯委員會 編, 《中國長城遺蹟調查報告集》(文物出版社, 1981).

李慶發·張克舉, 〈遼西地區燕秦長城調查報告〉(《遼海文物學刊》2期, 1991), 40~50쪽.

서》와 내용이 거의 같으나 “(부여는)… 山陵과 넓은 못이 많은 곳이다”라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다. 또한 《晉書》東夷傳 부여국조에는 “부여국은… 남으로는 선비와 접하며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고 하여 남쪽 경계에 고구려 대신 선비가 등장하고 있다.

부여의 위치에 관한 《후한서》와 《삼국지》의 서술은 거의 일치한다. 이것은 《후한서》나 《삼국지》가 편찬대상으로 하였던 후한~삼국시기에 부여의 위치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서》의 기록은 소략하기는 하지만 많은 점에서 《후한서》나 《삼국지》와 일치한다. 다만 부여의 남쪽에 선비가 있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3세기 이후 부여의 서남쪽에 진출한 선비의 존재를 보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晉시기(265~420)에도 후한·삼국시기와 마찬가지로 부여의 남쪽에는 고구려가 위치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삼국지》동이전에 따르면 3세기 중엽 고구려는 남쪽으로 조선·예맥, 동쪽으로 옥저, 북쪽으로 부여와 접하였다고 한다.<sup>61)</sup> 따라서 후한에서 진대에 걸쳐 부여의 위치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부여의 위치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등장하는 현도군은 원래의 압록강유역에 있던 것이 1세기 말~2세기 초에 고구려의 공격으로 渾河 연안으로 쫓겨간 제3현도군을 말한다.<sup>62)</sup> 그 치소는 요동군(지금의 遼陽市) 북쪽 200리<sup>63)</sup>로서 瀋陽市 동쪽 上栢官屯의 漢城<sup>64)</sup>이나 撫順의 노동공원 漢성지<sup>65)</sup> 등으로 비정되고 있다. 漢·魏의 200리는 지금의 150여 리에 상당하므로, 삼국시대의 현도군은 마땅히 지금의 요양 동북 150리 전후의 심양·무순 사이에서 구하는 것이 순리이다.<sup>66)</sup> 또한 한·위시대의 천 리는 대략 지금의 700리에 해당하므로 부여 초기의 왕성은 마땅히 심양시의 북쪽 700리 되는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곳은 바로 지금 길림성 중부 일대에 해당한다. 혹자의 주장처럼

61)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夫餘·東沃沮.

62) 《後漢書》권 90, 志 23, 郡國 5, 玄菟郡.

63) 《三國志》권 47, 吳書 2, 吳主傳 2, 嘉禾 2년조 所引 吳書.

64) 陳連開, 〈唐代遼東若干地名考釋〉(《社會科學輯刊》3期, 1981).

白鳥庫吉 等, 《滿洲歷史地理》1(東京; 南滿洲鐵道會社, 1913), 96~98쪽.

65) 孫進己·馮永謙, 앞의 책, 392~394쪽.

66) 王綿厚·李健才, 《東北古代交通》(1988), 121쪽.

부여의 초기 중심지로 흑룡강성 경내의 松嫩 혹은 呼嫩平原 일대를 비정하는 것은 현도 북 천 리라는 기재와 부합되지 않는다.

현도군에서 동북쪽으로 천여 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부여는 자연지세로 보아 ‘동이의 지역에서 가장 평평’한 곳이며, 또 이곳에는 ‘넓은 못’이 많았다. 이것은 부여가 주변 나라들보다 평야지대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혼하 연안에서 북쪽 천 리에 해당하는 곳에서 평야지대를 차지하였을 부여의 중심지를 찾는다면, 그것은 松花江유역 외에는 달리 비정할 곳이 없다.

부여의 영역으로 비정되는 길림성의 중심을 흐르는 송화강과 그 유역은 부여국의 발상지였으며 오랫동안 그 중심지였다. 송화강유역을 중심으로 사방 2천 리의 지역을 차지한 부여는 서쪽으로 鮮卑, 남쪽으로는 고구려, 동쪽으로 挹婁와 각각 이웃하였으며 북쪽에는 弱水가 있었다고 한다.

역대로 약수라는 명칭을 가진 강은 하나만 있었던 것 같지 않으며, 그 위치에 대하여는 종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다. 그것은 크게 嫩江·송화강으로 보는 견해와 흑룡강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진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약수를 嫩江·송화강으로 보고 있다.<sup>67)</sup> 弱의 옛 발음이 nziak 혹은 niak이므로 약수는 송화강의 지류인 嫩江(Nonni강)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sup>68)</sup> 길림 일대의 서단산문화를 기반으로 부여가 성장한 만큼 서단산문화의 분포범위를 기준으로 그것이 북으로 송화강·拉林河를 넘지 않기 때문에 당시 부여 북쪽의 경계가 되었던 강은 제1송화강과 嫩江 일대가 타당하다는 것이다.<sup>69)</sup>

약수를 흑룡강으로 보는 견해는 전성기의 부여가 2천여 리에 걸쳐 있었다는 표현과 《진서》東夷傳 肅慎氏條에 “숙신의 북쪽은 약수를 끝으로 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약수라는 강은 부여뿐 아니라 숙신의 북쪽까지도 경유하면서 흐르는 큰 강이었으므로, 그러한 강은 흑룡강밖에 없다는 것이다.<sup>70)</sup>

67) 池内宏, 〈夫餘考〉(《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13, 1932), 84쪽.

李健才, 앞의 글(1982).

王綿厚, 〈東北古代夫餘部的興衰及王城變遷〉(《遼海文物學刊》2期, 1990).

68) 白鳥庫吉, 〈夫餘國の始祖東明王の傳説に就いて〉(《白鳥庫吉全集》5, 1970).

69) 李健才, 앞의 글(1982).

王綿厚, 앞의 글.

부여의 북쪽 경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부여의 북쪽에 위치한 흑룡강성의 三肇지구(肇源·肇州·肇東)를 중심으로 그 윗쪽의 오위르강까지 분포하는 백금보·한서·망해둔문화를 주목해야 한다. 이 문화는 앞에서 보았듯이 바로 동명전설의 고리국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은 초기 부여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곳이다. 그리고 전성기 부여의 문화권에서 보면 눈강 일대의 문화권도 부여의 문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문화권 북쪽에서 약수의 위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른다면 약수를 흑룡강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고대에는 지금의 嫩江·동류 송화강과 흑룡강 하류를 하나의 河流로 인식했다고 한다.<sup>71)</sup> 그리고 과연 눈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흑룡강까지 부여의 영역에 포괄되어 있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특히 북위시대의 難河가 지금의 제1송화강과 난하를 가리키는 那河였고, 그것이 포괄하는 하류의 범위가 눈강과 제1송화강 및 흑룡강 하류였던 것으로 보아 약수의 위치는 눈강과 제1송화강 및 흑룡강 하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sup>72)</sup> 史家들도 부여의 중심지에서 북쪽에 있는 강을 약수라 하였고, 이 강은 동으로 흘러 동해로 나간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옥저의 북쪽과 서쪽 및 부여의 북에 있는 강으로서 약수는 동류 송화강과 흑룡강 하류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sup>73)</sup> 과거에 약수를 지금의 結雅河와 흑룡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이하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는데<sup>74)</sup> 합리적이지는 하나 실제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부여는 남쪽으로 삼국의 고구려와 접하고 있었다. 서한 때의 고구려는 국력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그 세력은 輝發河를 넘을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은 동한 때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즉 兩漢시대의 고구려는 요동군의 동쪽으로 그 北界는 당시 휘발하를 넘지 않는 柳河·海龍·輝南 일대였다.<sup>75)</sup> 흑

70) 白鳥庫吉, 〈弱水考〉(《史學雜誌》7-11·12, 1896).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앞의 글, 124쪽.

71) 李健才, 앞의 글(1982), 170~172쪽.

72) 《魏書》권 100, 列傳 88, 烏洛侯·勿吉.

《太平實字記》권 199.

73) 李健才, 앞의 글(1982).

田 耘, 〈西漢夫餘研究〉(《遼海文物學刊》2期, 1987).

74) 張博泉, 〈夫餘史地總說〉(《社會科學輯刊》6期, 1981).

자는 길림시 龍潭山城에 보이는 고구려유물을 근거로 길림 일대까지를 고구려의 북한계선으로 보고 있으나,<sup>76)</sup> 고구려의 경계는 대개 지금의 길림성의 휘발하 상류부근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서쪽 경계는 대략 지금의 太子河·길림 哈達嶺을 일선으로 한군현 및 예맥과 접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혼하 중류지역에 있던 3세기의 고구려 ‘新城’(지금 撫順의 高爾山城)이 고구려 서북쪽의 요충지였다는 점에서 서북쪽으로는 渾河 중류 북쪽까지 뻗어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결국 부여는 秦漢대의 장성이 있던 開原과 휘발하 상류를 연결하는 선보다 북쪽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서》地理志에서는 진시황이 연나라를 통합한 사실을 전하고 뒤이어 연이 북쪽으로 오환·부여와 경계를 접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오환과 부여는 연의 북쪽에서 기원전 3세기 말에서 기원전 1세기 말에 걸치는 시기에 서로 이웃하고 있었으며 부여의 서쪽에 오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 말에서 기원전 2세기 초에 오환은 흉노에게 정복당한 후에도 본래 살던 지역에 그대로 있었으므로 부여와 오환과의 지리적 관계는 기원전 1세기까지도 그 전시기와 다름이 없었다. 이후 《후한서》나 《삼국지》에서 부여가 서쪽으로 선비와 이웃하였다고 한 것은 이전 흉노가 차지한 오환의 동쪽지역에서 새로 성장한 선비와 부여의 지리적 관계를 전하는 것이다.

기원 2세기 중엽 선비의 군장인 檀石槐은 흉노고지를 차지하고 그 관할구역을 동부·중부·서부의 3개 부로 나누었는데, 동부지역은 右北平으로부터 遼東에 이르러 부여·예맥의 20여 군과 접하였다. 3세기 전반 軻比能 때의 선비의 동쪽 변경은 遼水界線에 이르렀다고 하는데,<sup>77)</sup> 기원전 3~2세기의 요수는 오늘의 요하이며 이 시기의 요동도 요하 동쪽지역이다. 그런데 당시 요

75) 兩漢교체기에 고구려는 지금의 태자하유역에 있던 梁貊을 치고, 지금의 新濱縣 老城 부근으로 비정되는 漢의 高句麗縣을 공격하였다(《三國史記》권 13, 高句麗本紀 1, 琉璃明王). 이후 동한 때에는 遼東·玄菟 兩郡을 공격하였는데(《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이로 보아 兩漢시기 부여와 고구려의 接界地는 대략 지금의 혼하·휘발하 상류 분수령 일대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76) 田村晃一, 〈新夫餘考〉(《靑山考古》3, 1987), 133쪽.

77)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하 하류에는 후한과 위의 요동군·현도군 등이 있었으므로 선비의 동쪽은 서요하 이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1970년대에 내몽고 哲里木盟에서 舍根문화유형의 유적<sup>78)</sup>을 발견하였는데 초보적인 고증에 의하면 이는 東部 선비의 유적이라고 한다. 이 밖에 1960년대에 확인된 내몽고 呼倫貝爾盟의 完工유적과 新巴爾虎右旗 札賚諾爾古墓群<sup>79)</sup>은 토광목곽묘와 거기서 출토된 전투적인 유목민 계통의 유물들을 통해 拓跋 鮮卑의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선비는 대체로 동북의 서부 초원지대에 있었고, 그 동쪽은 부여, 즉 오늘의 大安·乾安·雙遼 일선에 잇대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길림성 서부의 通榆縣에서 선비문화 유적이 발견된 바 있다.<sup>80)</sup> 그러나 통유 이동에서는 선비유적이 발견된 것이 없으므로 부여국의 西界는 대체로 白城에서 통유에 이르고 다시 쌍요·昌圖 일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황하 이동에서 陶鬲이 분포하는 지역이 바로 선비가 분포한 지역으로 동으로 송화강과 눈강까지 도력이 분포하는 것도 선비의 분포범위를 시사한다는 주장<sup>81)</sup>과 일치한다.

부여는 동쪽으로 挹婁와 경계를 접하였다. 《삼국지》 위서동이전에는 “읍루는 부여 동쪽 천여 리에 있고 큰 바닷가에 있으며, 남으로 북옥저와 접하였으나 그 북쪽 끝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 지역에는 험고한 산이 많으며… 산림 사이에 거처한다. 기후가 몹시 차서 늘 굴 속에서 산다”고 했다. 《후한서》 읍루전의 기록도 이와 동일하다. 이처럼 읍루는 동쪽 큰바다에沿海 있고 남쪽으로 북옥저와 접하고 있었다. 최근 발견된 團結文化는 연대가 춘추전국시대에서 동한시대에 해당하고 그 분포범위 또한 한반도 함경북도에서 북으로는 完達山 남쪽 이남, 서로는 牧丹江·老爺嶺 이동에 걸쳐 있다. 이같은 시대 및 지역은 모두 문헌상의 옥저족의 분포와 부합하므로 옥저족의 유적으로 보고 있다.<sup>82)</sup> 그런데 옥저에 대해서는 북옥저가 남옥저의

78) 張柏忠, 〈哲里木盟發現的鮮卑遺存〉(《文物》2期, 1981).

79) 米文平, 〈鮮卑石室的發現與初步研究〉(《文物》2期, 1981).

80) 中 樹·相 偉, 〈通榆縣興隆山鮮卑墓清理簡報〉(《黑龍江文物叢刊》3期, 1982).

81) 何光岳, 〈鮮卑族的來源與遷徙〉(《黑龍江文物叢刊》4期, 1984), 24~26쪽.

82) 林 沅, 〈論團結文化〉(《北方文物》1期, 1985).

——, 〈肅慎挹婁和沃沮〉(《遼海文物學刊》1期, 1986).





국 부여는 양한시대에 동으로 읍루를 예측시키고 있었으며, 그 경계는 張廣才嶺과 威虎嶺을 사이에 두었음이 분명하다.

이상을 통해 1~3세기의 부여국은 대략 북으로 눈강과 송화강 일대까지 포괄하면서 서쪽으로는 洮兀河 하류의 건안·장령·쌍요 등지를 경계로 하였고 서남으로는 요동의 중국세력과 접하고 있었다. 동으로는 위호령을 경계로 목단강유역에 이르고, 남으로는 길림 哈達嶺을 경계로 輝發河 이북에 이르렀다. 이 지역의 동부는 ‘산릉이 많고’, 서부는 ‘넓은 못이 있고’, 중부는 ‘동이지역에서 가장 평탄한 곳’인 송눈평원이다.

## (2) 부여국 왕성의 위치

### 가. 부여국 전기의 왕성

부여국의 중심지역, 즉 왕성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부여 왕성의 위치는 《資治通鑑》의 기록에 따르면 후기에 서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전·후기로 나누어 고찰해야 한다.

부여 전기의 중심지에 관해서는 西豐縣 西岔溝유적→老河深유적설<sup>86)</sup>이 주장되기도 하고, 한서 상충(II기)→望海屯문화→노하심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학계의 경우에는 ‘예성’이 있는 곳에 부여의 수도가 있었는데, 그곳은 오늘날의 ‘부여’ 일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87)</sup> 부여 전기의 왕성을 지금의 농안에, 후기 왕성은 요령성 昌圖縣 북쪽 40리의 四面城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sup>88)</sup> 이와 달리 부여 본래의 위치를 농안의 동북방, 즉 송화강 북쪽의 雙城에서부터 그 북쪽에 있는 阿勒楚喀(일명 阿什河)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sup>89)</sup> 그러나 이곳에서는 漢·魏시기의 古城과 유물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도군에서 북으로 천 리(지금의 700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과도

86) 孫進己·馮永謙, 앞의 책, 256~259쪽.

87)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앞의 글.

88) 金毓黻, 《東北通史》上編, 권 3(國立東北大學, 1977), 30~31쪽.

89) 阿勒楚喀 일대는 金朝의 발상지로 평야도 넓고 토양도 비옥하여 《魏書》동이전에서 말하는 지세에 농안보다도 더 적합하고 녹산은 아록초객 부근의 한 산을 일컫는 것이라고 한다. 후기의 왕성은 농안으로 추정된다고 한다(池內宏, 앞의 글, 452~454쪽).

맞지 않으며, 346년 부여가 서쪽 燕 가까이로 이동하였다고 했으므로 阿什河 일대는 그 위치가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에 의거하여 부여는 초기부터 길림시를 중심으로 한 松嫩평원에 중심을 두었다고 보고 있다.<sup>90)</sup> 그 이유는 대개 길림시 일대의 서단 산문화를 부여 선주민의 문화로 보고, 이후 길림 일대의 한·부여시기의 여러 유적과 유물, 특히 동단산 南城子古城을 부여의 중심성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蛟河市の 新街古城址<sup>91)</sup>와 福來東고성지<sup>92)</sup> 등 길림시 교외에서 부여 시기의 읍락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와, 남성자유적을 왕성으로 주변의 고성지 유적은 하나의 읍락지역으로 볼 수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먼저 부여의 중심지역으로 현도군 북쪽으로 천 리 떨어진 곳을 찾는다면 마땅히 지금의 길림성 중부 송화강 중류 일대가 된다. 특히 용담산과 동단산 일대에서는 많은 漢代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다.<sup>93)</sup> 동단산유지에서는 한대 五銖錢을 비롯하여 청동거울 및 漢式 ‘長樂未央’ 와당이 나왔다. 길림 동단산에서 용담산에 이르는 철길 양측에서는 한대 무덤이 발견되었고, 陶爐・耳環 등 漢나라 시기의 무덤에서 항상 보이는 明器가 출토되었다.<sup>94)</sup> 특히 길림시 동단산에서는 남성자고성이 발견되었는데, 이 고성지는 동단산 남록의 높은 대지상에 위치하였고, 황토흙을 판축하여 주위를 두른 고성지로서 성 내부의 평면은 둥근 타원형을 띠고 있었다.<sup>95)</sup> 성 내부에서는 대량의 토기편과 벽돌・기와 및 銅鈴・陶甕 등 한대 부여의 유물들이 출토되었고,<sup>96)</sup> 고구려 및 발해시기의 유물

90) 李殿福, 앞의 글.  
武國勳, 앞의 글.  
盧泰敦, 앞의 글(1989).

91) 山本首, 《蛟河敦化的古迹調査報告書》(1938 鉛印本).  
張忠培, 〈吉林市郊古代遺址的文化類型〉(《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1期, 1963).

92) 董學增, 〈吉林蛟河縣新街・福來東古城考〉(《博物館研究》2期, 1989).

93) 李健才, 앞의 글(1982), 170~173쪽.  
부여가 漢・魏와 관계가 밀접하여 使者의 왕래도 빈번하였기 때문에 한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아 부여 전기의 왕성은 한・위시기의 문화유물이 다수 출토하는 용담산성과 동단산 일대라고 추정하고 있다.

94) 李文信, 〈吉林市附近之史的遺物〉(《歷史與考古》1, 沈陽博物館專刊, 1946).

95) 城은 남북에 두 개의 門이 있고, 담장은 주위 1,050m, 남문 부근에는 하나의 장방형 高地가 있으며, 남북 길이 150m, 동서 너비 73m이다(董學增, 앞의 글).

96) 馬德謙, 〈談談吉林龍潭山東團山一帶的漢代遺物〉(《北方文物》2期, 1991).

이 산포하고 있었다.<sup>97)</sup> 이 고성에서 나온 유물로 보아 남성자고성은 한과 부여 이전 시기부터 존재하였으며 하한은 고구려와 발해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자고성지를 전기 부여국의 왕성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삼국지》동이전 부여조에 따르면 “부여는 현도군에서 북쪽으로 천여 리 떨어진 곳에 왕성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곳은 바로 길림성 중부, 특히 길림시 일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둘째, 남성자고성은 평면이 대략 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성책을 만드는데 모두 둥글게 하였으며 감옥과 비슷하다”고 한 《삼국지》동이전 부여조의 기록과 들어맞는 것이다.<sup>98)</sup> 셋째, 남성자의 지리적 환경과 문헌의 기재가 부합한다는 점이다. 부여는 “처음에 鹿山에 있었고”, “산·구릉과 넓은 못이 많으며”, “남녀가 음란하고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이는데… 시체를 國南山에 버린다”고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고음운학연구에 따르면 녹산은 오늘날의 동단산과 부근의 龍潭山을 가리킨다고 한다.<sup>99)</sup> 이 일대는 산이 중첩되어 있고, 강에 면한 개활지로서 넓은 못이 많다는 기록과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 ‘國의 남산’이라는 것은 왕도(수도)의 남산을 지칭하는 것으로,<sup>100)</sup> 남성자의 동남쪽 1km 떨어진 곳에 帽兒山이 있는데, 모아산 일대에서는 ‘有槨無棺’의 한대 봉토 토광목곽묘군<sup>101)</sup>이 발견되었다. 이곳이 바로 왕성의 남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발굴중이지만 모아산 일대에는 약 천여 기 이상의 토광목곽묘가 존재한다고 한다.<sup>102)</sup> 넷째, 남성자 안에서 서단산문화의 석기·토기 외에 대량의 한식이 아닌 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사실이다.<sup>103)</sup> 이는 예맥족계의 한 지파가 예족이 살던 ‘濊城’에 와서 서로 융합하여 부여를 건국하였던 사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sup>104)</sup>

97) 董學增, 〈吉林東團山原始·漢·高句麗·渤海諸文化遺存調查簡報〉(《博物館研究》創刊號, 1972).

98) 李健才, 앞의 글(1982), 170~173쪽.

99)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編, 〈古代文物遺蹟〉(《吉林省志》권 43, 文物志, 吉林文史出版社, 1994), 102쪽.

100) 盧泰敦, 앞의 글(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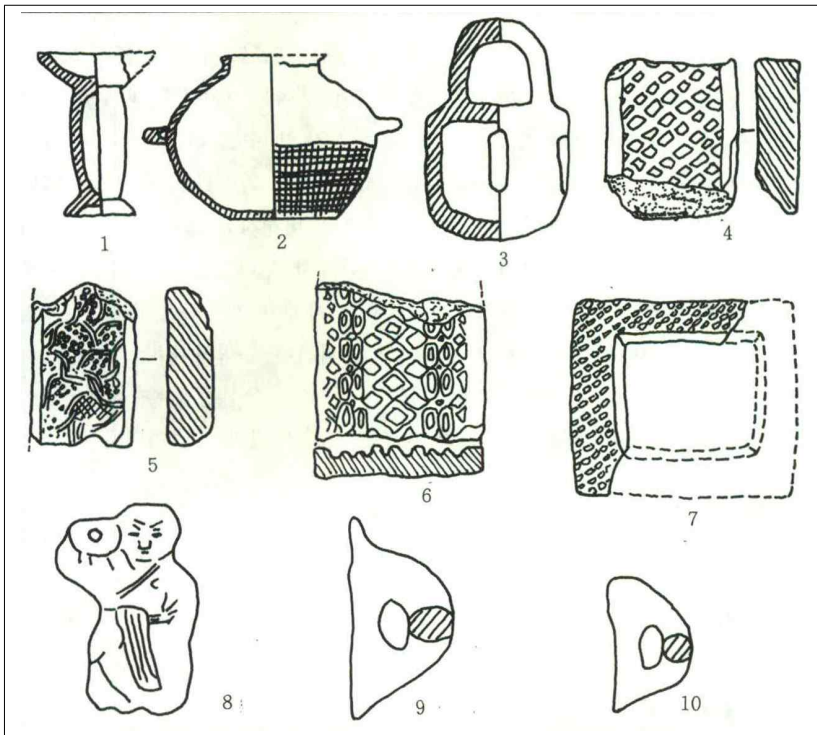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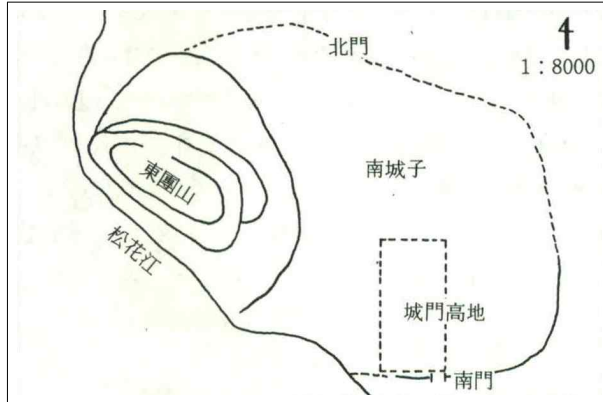
101) 吉林市博物館, 〈吉林帽兒山漢代木槨墓〉(《遼海文物學刊》2期, 1988).

102)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編, 앞의 글(앞의 책), 102쪽.

103) 董學增, 앞의 글(1972).

104) 武國勳, 앞의 글.

〈그림 5〉 남성자 평면도 및 채집유물



1. 陶豆, 2. 方格紋陶罐, 3. 銅鈴, 4~7. 花紋磚, 8. 陶甕, 9~10. 陶耳.

최근에는 남성자의 규모가 주위가 1km 정도로 비교적 작기 때문에, 이를 부여 왕성(지금의 용담산 기차역 부근)의 衛城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sup>105)</sup> 대개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최근 대다수의 학자들은 남성자는 宮城이었고 용담산역 일대는 ‘都城’에 해당되며, 두 성이 합쳐져서 부여 전기의 왕성을 이루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문헌과 고고학 자료에 의하는 한 立國 초기 및 3세기 전성시기까지의 부여 왕성은 서단산문화 이래 부여의 문화 및 중국 한대의 문화요소들이 많이 보이는 길림시 용담산·동단산 일대로 비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된다.<sup>106)</sup>

#### 나. 부여국 후기의 왕성

《자치통감》晉紀의 기록에 따르면 “부여는 처음에 鹿山에 거주하였는데 東晉 永和 2년(346) 백제의 침입으로 서쪽으로 燕 가가이에 옮겼다가 연 慕容皝 자제의 공격을 받아 왕 이하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sup>107)</sup>고 한다. 이 기사를 통하여 동쪽에 왕성을 두고 있던 부여는 346년에 백제로 표현된 세력의 침략을 받아 서쪽으로 수도를 옮겼음을 알 수 있다.

부여 전기의 중심지였던 길림 일대에서 서쪽에 위치한 후기 扶餘城의 위치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長春·農安 부근으로 비정하는 설이 일찍이 제기되었다.<sup>108)</sup> 문헌상 뚜렷한 시기인 《삼국지》 단계의 부여국은 東遼河 상류 송화강유역 일대에 자리잡고 있었는 바, 원부여 서쪽에 해당하는 도읍은 오늘날의 장춘 북쪽 伊通河畔의 농안 부근이라는 의견이 유력하다.<sup>109)</sup> 농안은 曹廷杰(1850~1916)의 《東三省輿地圖說》 서문<sup>110)</sup>에서도 동삼성을 지배하려면 이 농안을 장악하여야 한다고 역설한 만주의 요충지였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105) 李健才, 앞의 글(1982).

106) 李健才, 위의 글.

武國勳, 앞의 글.

王綿厚, 앞의 글, 80쪽.

107) 《資治通鑑》권 97, 晉紀 19, 穆帝 永和 2년 정월.

108) 池內宏, 앞의 글.

日野開三郎, 〈扶餘國考〉(《史淵》 34, 九州大, 1946), 1~104쪽.

109) 盧泰敦, 앞의 글(1989), 35~36쪽.

《中國歷史地圖集釋文彙編》東北卷 夫餘條(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 32쪽.

110) 傅朗雲, 〈評曹廷杰的歷史公的〉(《博物館研究》 2期, 1989)

예족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온 비옥한 평야지대로, 하천유역의 비옥한 땅과 넓은 초원은 농업과 목축 발전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346년 백제로 표현된 세력의 침입으로 옮긴 부여성의 위치로 농안 일대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부여국의 후기 왕성과 관련하여 《遼史》지리지의 通州와 龍州黃龍府에 관한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sup>111)</sup> 이 기사에 의하면 통주는 용주황룡부였고, 발해의 부여성이며 부여국의 王城이었다. 그런데 이 용주황룡부는 1020년 이후 그 위치를 동북방인 지금의 농안 일대로 옮기게 되는데, 따라서 원래의 용주황룡부는 농안의 서남쪽 부근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112)</sup> 그러나 이 기록만으로는 원래의 황룡부가 농안과 가까운 서남쪽, 즉 농안 부근에 있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부여가 “서쪽으로 연 가까이에 도읍을 옮겼다”는 기사를 다시 살펴보면 당시는 타국의 침략을 받아 급하게 피난을 가야만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山地가 있고 험한 곳, 방어하기에 유리한 지역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평야지역인 농안·장춘지역은 일단 피난지로는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

부여가 피난간 지역은 4세기 당시 연과 가까운 곳으로 뒤이어 부여는 연의 침입을 받게 된다. 346년 당시 부여 서쪽에 있던 연은 전연 모용황의 세력을 말한다. 이 당시 전연은 龍城(지금의 朝陽)으로 중심을 옮겨 서요하 이남지역과 요동의 鐵嶺·撫順·本溪를 포함하여 淸原까지 세력이 미치고 있었다.<sup>1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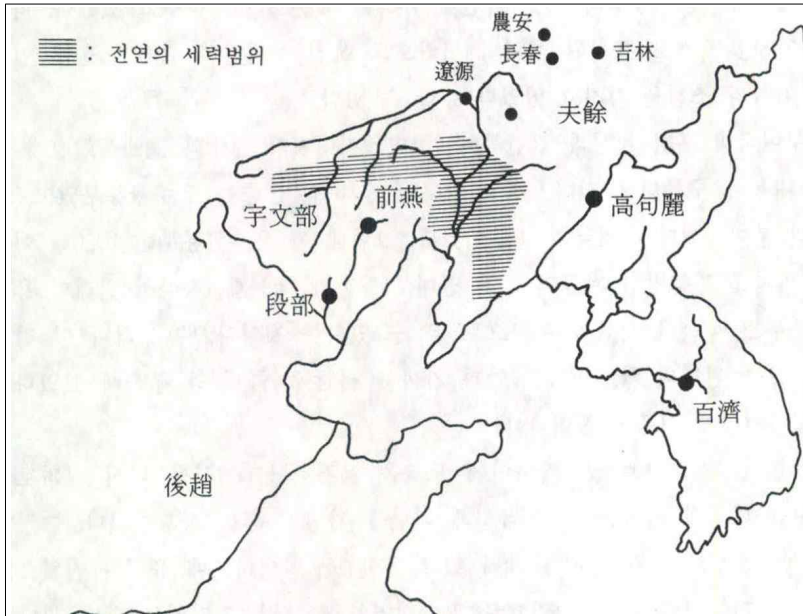
이러한 전연의 세력분포 범위를 고려한다면, 길림시 일대에 있던 부여가 왕성을 서쪽 연 근처로 옮겼다고 할 때 그 지역은 당연히 연의 以東지역과 가까운 四平·昌圖·西豐·遼源 등지였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는 당시의 세력판도를 지도에 나타낸 다음의 〈그림 6〉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111) 《遼史》권 38, 志 2, 地理 東京道 通州·龍州 黃龍府.

112) 盧泰敦, 앞의 글(1989), 34~36쪽.

113) 《中國歷史地圖集》4, 東晉十六國 南北朝時期, 9~10쪽.

〈그림 6〉 340년 전후 동북아시아 제세력의 판도



또한 346년 당시에는 길림 동북부의 挹婁 혹은 勿吉세력이 급속히 성장하여 부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sup>114)</sup> 그리고 도리어 부여가 물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자치통감》에서 부여를 공격하였다는 백제는 물길, 구체적으로는 伯咄靺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sup>1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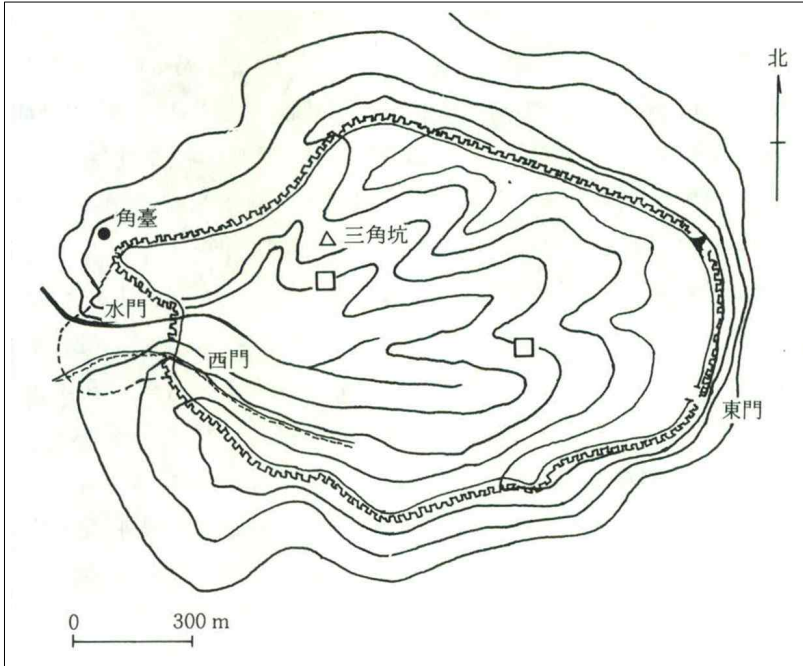
최근 부여가 피난한 지역으로 西豊縣 城山子山城을 든 견해가 나왔는데<sup>116)</sup> 경청할 만한 주장이라 생각된다. 이 지역에서는 漢·魏시기의 유물은 보이지 않고 주로 고구려시기의 유물이 출토되는데 이는 부여시기의 부여성을 고구려가 그대로 사용했던 데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14)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挹婁.

115) 당시 史家들은 伯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音が 가까운 百濟를 써서 표기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孫進己·馮永謙 主編, 《東北歷史地理》 2,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89쪽).

116) 王綿厚, 앞의 글, 83쪽.

〈그림 7〉 성산자산성 평면도



한편 길림 일대에서 서남쪽으로 이동하는 교통로를 분석한 결과 송화강 상류의 輝發河와 柳河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 고대의 주된 교통로였다고 한다. 이는 346년 당시 부여의 피난경로를 추정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많으며 서풍현 성산자산성을 후기 왕성으로 비정하는 데 하나의 방증이 된다고 한다.<sup>117)</sup> 특히 4세기 이후인 慕容廆시기 연의 위치는 朝陽과 錦州를 중심으로 한 요서지역과 서요하의 동북부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는 분석<sup>118)</sup>이 있다. 이에 근거할 때 ‘西徙近燕’했을 때의 부여의 위치는 길림지역의 서북쪽 보다는 서남쪽인 서풍 일대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4세기 이후에 農安 서북지역에는 室韋나 烏洛侯의 선조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117) 王綿厚·李健才, 앞의 책, 178~185쪽.

118) 池培善, 《中世東北亞史研究》(一潮閣, 1986), 54~56쪽.



사실은 부여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다.<sup>119)</sup>

백제의 요서진출설과 관련하여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한강유역의 백제가 고구려지역을 지나서 부여를 공격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이를 기록 그대로 백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백제를 단순히 고구려의 誤寫로 보는 것도<sup>120)</sup> 문제가 있다. 만약 당시에 남쪽에 있던 고구려의 공격으로 부여가 피난하였다면 길림 북쪽 방면으로 도움을 옮겨갔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므로 서쪽으로 연 가까이 옮겼다고 한 기록과는 어긋나는 셈이다.

따라서 4세기 중엽 부여는 동북쪽에 존재한 물길·읍루 등의 세력에 밀려 피난하였고 그 방향은 서북쪽이 아닌 서남쪽의 어느 지역에 비정하는 주장도<sup>121)</sup>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고학계에서 지금의 農安城지역을 수차례 조사한 결과 유물의 연대는 빨라야 발해 이후의 遼·金시대를 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早期 유적과 유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sup>122)</sup> 후기 왕성의 비정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전성기인 3세기까지 부여의 영역은 길림 일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가장 합리적이거나, 그 이후 단계의 중심지문제는 종래의 통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고고학 자료를 참조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宋鎬最〉

119) 《魏書》권 100, 列傳 88, 庫莫奚國·契丹國·烏洛侯國.

120) 盧泰敦, 앞의 글(1989), 49쪽.

121) 王綿厚, 앞의 글, 82쪽.

122) 王綿厚, 위의 글, 82~83쪽.

## 2. 부여의 성장과 대외관계

### 1) 부여의 성장

#### (1) 부여의 기원(부여·북부여·동부여)

기원전 2세기 말을 전후하여 濊離國에서 발생한 내분으로 東明으로 표기되는 집단이 남쪽 濊族의 先住지역에 와서 부여국을 건립하였다. 부여국은 건국 후에 매우 신속한 발전을 하여 오래지 않아 분화가 발생하였으며, 기원전 1세기경 많은 부여인들이 제2송화강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동남쪽을 향해 遷去하였다. 이러한 면은 부여의 건국설화인 동명신화에 잘 나타나 있다. 동명신화는 夫餘族系의 제집단이 공유하였던 건국신화로서 고구려의 朱蒙神話에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고구려 주몽신화에서는 고구려의 기원으로서 ‘부여’ 대신 ‘북부여’나 ‘동부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5세기 당시 고구려인의 기록인 〈廣開土王陵碑〉에 의하면 기록상의 첫 부여국은 北夫餘國으로 되어 있다.<sup>1)</sup> 고구려 왕실의 북부여출자설은 4세기 후반 소수림왕대에 고구려의 성립과정에 대한 조정의 공식적인 건국전승이 정립될 때 그 일환으로 확립된 것이다.<sup>2)</sup> 이 때에 고구려의 초기 왕계도 정립되었는데 계루집단은 압록강 중류유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몽전승에

1) 〈광개토왕릉비〉는 여러 자료들 가운데 그 시기가 가장 이르다는 점에서뿐 아니라 고구려 사람들이 썼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기원문제에 관한 가장 신빙할 만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구려 건국전설 중 적어도 고구려의 기원에 대해서만은 고구려 왕실에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비의 서술은 믿을 수 있다고 본다.

2) 하느님(天帝)과 水神(=河伯)을 대신하는 人格神의 모습을 띤 해모수와 유화가 등장하는 《三國史記》所收의 고구려 건국설화는 〈廣開土王陵碑〉·〈牟頭婁墓誌銘〉·《魏略》에 실려 있는 설화보다 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설화가 전면에 등장할 때에 주몽의 출생지가 동부여라는 전승과 동부여왕 해부루와 금와왕에 관한 전승도 덧붙여진 것으로 여겨진다(박시형,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출판사, 1966, 93~114쪽 및 盧泰敦,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の 起源〉(《韓國古代史論叢》5,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3).

서 볼 수 있듯이 부여 방면에서 來住한 것으로 정리되었다.<sup>3)</sup>

〈광개토왕릉비〉에는 “옛적 시조 鄒牟王이 나라를 세웠는데 (왕은) 북부여에서 태어났으며, 天帝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河伯의 따님이었다. …길을 떠나 남쪽으로 부여의 奄利大水를… 건너가서 沸流谷 忽本 서쪽 산상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sup>4)</sup>고 전하고 있다. 이 주몽신화는 사서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에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인 줄거리는 동명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論衡》이나 《魏略》에서는 부여의 건국사실을 전하면서 북이 橐離國(또는 橐離國)을 들고 있지 북부여라는 국명은 쓰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종래에는 중국측 자료와 국내 자료에 나타나는 북부여를 별개의 새로운 국가가 아니라 부여와 같은 나라로 보아 왔다. 원래 부여국의 수도는 鹿山, 지금의 吉林市지역에 있었으나 그 지역이 고구려 수도에서 볼 때 북쪽에 있었으므로 북부여라고 했고, 4세기 이후 부여의 일부 세력이 두만강유역에서 자립하니 고구려측에서 이를 동부여라 하고 原부여는 계속 북부여라고 지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5)</sup>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몽의 “出自北夫餘”의 ‘북부여’는 ‘北部夫餘’라는 입장이다. 이것은 5세기 고구려인의 天下觀<sup>6)</sup>에 입각해 볼 때나 〈광개토왕릉비〉에 북부여가 부여와 함께 표기되어 있는 점 및 〈牟頭婁墓誌銘〉에 나오는 모두루의 ‘北夫餘守事’라는 관직이 부여지역에 해당할 것<sup>7)</sup>이라는 점 등에 근거할 때 매우 합리적인 주장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광개토왕릉비〉에는 “북부여 천제의 아들인 추모가 수레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부여의 엄리대수를 건너 비류수 흘본 서쪽 산상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고 하여 북부여와 부여를 서로 다른 나라로 구별하고 있다. 북부여와 부여를 같은 나라의 다른 표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광개토왕릉비〉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면 북부여에서 한 집단이 같

3) 盧泰敦, 위의 글, 67쪽.

4) 〈廣開土王陵碑〉(《譯註 韓國古代金石文》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3~35쪽.

5) 盧泰敦,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國史館論叢》4, 國史編纂委員會, 1989).

6) 盧泰敦,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의 天下觀〉(《韓國史論》19, 서울대, 1988).

7) 武田幸男,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朝鮮學報》99・100, 1971).

라져 나와 강을 건너 세운 나라가 부여로 되어 있으므로 북부여와 부여는 구별되는 국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광개토왕릉비>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논형>과 <위략>의 동명설화와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때, 비문에 북부여로 기록된 내용은 <위략>의 동명설화에 등장하는 북이 고리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부여와 부여는 서로 다른 국가였기 때문에 구분하여 표기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이같은 사실은 앞에서 보았듯이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눈강·제1송화강을 중심으로 번성한 백금보-한서문화는 길림 일대의 서단산문화와 지역적·문화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다가, 부여의 전성시기에는 한서 상층-망해둔문화로 발전하고 전체적으로는 한대 부여문화에 포괄되고 있다. 이 문화는 치치하얼시·杜爾伯特 몽고족자치현·肇源縣·巴彥縣 및 湯原縣 등지에 퍼져 있으며, 주요 분포지는 제1송화강 북안과 눈강 하류 일대이다. 부여가 가장 강력했을 때 그 북쪽 강역이 대개 제1송화강 이남에 이르렀다고 한다면<sup>8)</sup> 망해둔문화가 북부여의 문화로 이해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sup>9)</sup> 결국 기원 1세기 王充이 쓴 <논형>에 부여의 시조 동명이 북이 橐離國에서 왔다는 기사와, <광개토왕릉비>에서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북부여에서 왔다는 전설은 표현 형태는 얼마간 다르지만 같은 기원을 가진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이의 탁리국은 부여의 북쪽에 있던 나라, 즉 북부여로 해석될 수 있다.

<魏書>豆莫婁전에는 “두막루국은 勿吉의 북쪽 천 리에 있으며, 洛邑에서 8천 리를 가면 옛날 북부여이다”라는 기사가 있다.<sup>10)</sup> 그리고 <新唐書>流鬼傳에는 “두막루국은 스스로 북부여의 후예라고 하는데, 고구려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에 나머지 사람이 那河를 건너 그 곳에 살았다<sup>11)</sup>”고 되어 있다. 이 기록은 부여가 망한 후 부여인들이 송화강(눈강)을 건너 자기들의 故國으로 돌아가 나라를 세운 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 때 부여인들의 고국이라고 하는 나하<sup>12)</sup> 이북지역은 바로 북부여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중심

8) 이 책의 1. 부여의 성립 3) 부여의 영역과 지리적 특성 (1) 3세기 부여의 영역 참조.

9) 孫正甲, <夫餘源流辨析>(《學習與探索》6期, 1984), 139~140쪽.

10) <魏書> 권 100, 列傳 88, 豆莫婁.

11) <新唐書> 권 220, 列傳 220, 流鬼.

지역은 송화강과 흑룡강이 합류하는 근방인 松嫩平原에 비정할 수 있다. 한편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의 동명성왕조에 “그 옛도읍에는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사람이 天帝의 아들 解慕漱라고 자칭하면서 와서 도읍하였다”<sup>13)</sup>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옛도읍’은 부여의 이주설화로 볼 때 解夫婁와 金蛙가 통치하던 부여지역의 북쪽에 있었던 도읍을 가리키는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그 지역에 부여와 또 다른 정치체가 수립되어 있었고, 그 지역이 북부여와 관련된 지역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믿어진다. 즉 지금의 제1송화강이 크게 꺾이는 부근을 중심으로 그 일대와 북쪽에 고리국 또는 북부여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북부여는 고구려의 관할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고구려는 4세기 중엽 이후 송화강유역에 진출하여 왕실의 고향인 북부여를 직접 장악하게 된다. 광개토왕은 모두루를 북부여에 파견하였는데, 이는 모두루 가문이 이곳과 연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모두루는 ‘北夫餘守事’라는 직책을 띠고 북부여의 중심지인 눈강유역 일대를 관장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모두루는 북부여지역을 통제하는 감찰역이면서 북부여와 고구려를 연결시켜주는 지방관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여의 기원이 북부여에 있다는 기록과 달리 국내 사서인 《三國遺事》와 《삼국사기》는 부여의 기원을 동부여에 두고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해모수의 아들 해부루가 이끄는 일부의 濊人이 동해가 迦葉原지방에 도착하여 동부여를 세웠다고 한다.<sup>14)</sup> 이후 동부여는 그 왕대가 夫婁-金蛙-帶素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삼국사기》에는 동부여가 아니라 부여에 관한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동부여에 관한 구체적 기사는 《삼국사기》에서 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가운데 동명왕본기<sup>15)</sup>와 권 32, 雜志 祭祀조의 동명왕과 관련된 기록<sup>16)</sup>에 동부여에 관한 기사가 보일 뿐이다. 이것은 동부여국

12) 여기서 那河는 바로 북위시대의 難河로서 눈강과 제1송화강을 가리킨다(李健才, 〈夫餘의疆域和王城〉, 《社會科學戰線》 4期, 1982).

13) 《三國史記》 권 13, 高句麗本紀 1, 始祖 東明聖王.

14) 《三國遺事》 권 1, 紀異 1, 東扶餘.

15) 《三國史記》 권 13, 高句麗本紀 1, 始祖 東明聖王.

가의 역사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광개토왕릉비>에는 광개토왕이 永樂 20년(410)에 동부여를 정벌하였는 바 “동부여는 옛날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중년에 배반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다”고만 하였을 뿐, 주몽이 출생한 나라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 능비 기사에 의하면 동부여는 고구려 건국 초기에 독자적인 국가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 건국 초부터 고구려에 예속된 지역이었다.

종래에는 대개 동부여를 285년 선비 모용씨의 공격으로 부여의 수도가 함락되자 그 일부 세력이 동으로 두만강유역에 피난을 갔다가 잔여세력이 남아서 건설한 국가로 이해하였다.<sup>17)</sup>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三國志》卬丘儉傳에 東川王이 魏軍에게 쫓겨 피난하였던 곳으로 되어 있는 買溝婁가 동옥저조에는 置溝婁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곳은 바로 두만강유역의 柵城이며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동부여의 味仇婁와 같은 곳이므로 결국 동부여는 3세기경 두만강유역에 있었다고 보았다.<sup>18)</sup> 그러나 《삼국사기》 기사를 따를 경우 두만강유역은 태조왕 이전부터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삼국지》동옥저조에 두만강유역의 북옥저를 치구루라고 했는데, 이곳은 바로 책성으로서 1세기를 지나면서부터 이미 두만강유역이 고구려의 세력권 아래 들어갔음을 전하는 것이다. 또한 《삼국지》관구검전 및 동옥저조에 전하는, 동천왕이 위군에게 쫓겨 피난하였던 매구루는 바로 치구루로서 북옥저 방면이고 숙신의 南界라 하였으므로 이는 바로 두만강유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지역이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까닭에 고구려 왕이 망명할 만한 곳으로 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 동부여가 건국될 여지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광개토왕릉비>의 미구루는 분명 부여(동부여)에 존재한 하나의 지역집단(지명)으로 책성의 의미인 치구루·매구루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리적으로도 길림성지역은 張廣才嶺

16) 《三國史記》권 32, 志 1, 祭祀.

17) 盧泰敦, 앞의 글(1989), 43~48쪽.

18) 李丙燾, 〈夫餘考〉(《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201~206쪽.

盧泰敦, 위의 글, 45~46쪽.

·威虎嶺·哈達嶺이 연결되어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어 그 이동의 목단강 유역 문화와 단절·구분된다는 점에서, 북부여에서 내려온 주민집단들이 이 경계선을 넘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동부여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는 두만강유역에서 동부여와 관련되는 城이나 유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

동부여가 ‘옛날 추모왕의 속민이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주몽이 정복하기 전에 동부여라는 나라가 존재하였다고 상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면서 동부여라는 나라를 실제로 정복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며 또 실제로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주몽이 沸流國·荇人國·북옥저 등을 정복했다는 기사는 있으나<sup>19)</sup> 동부여를 정복했다는 기사는 없다. 그러므로 <광개토왕릉비>의 내용은 분명 동부여의 실재를 기술한 것이 아니라, 원래 부여족의 한 지파인 동부여인이 부여 출신의 고구려 시조 추모왕과 깊은 관계에 있었다는 종족 출처의 同源性에 대한 수사적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표현을 낳게 된 배경에는 특정 시기에 있었던 동부여와 고구려 사이의 어떤 역사적 사실이 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sup>20)</sup>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추단하기 어려우나 이 귀질 자체는 동부여가 원래부터 마땅히 고구려에 복속되어야 할 존재라는 의미를 담은 당시 고구려 지배층의 친하관을 표현한 면이 있다고 한다.<sup>21)</sup> 어쨌든 주몽의 출자전승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능비의 동부여에 대한 표현은 고구려의 시조가 북부여에서 나왔는데 그 북부여의 일부가 갈라져나가 동부여를 이루었다고 여겨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한다.<sup>22)</sup> 한편 <모두루묘지명>에서도 고구려의 기원을 북부여라고 하고 있어 적어도 5세기 초반까지 왕실의 공식적인 견해는 고구려의 기원을 북부여에 두고 있었음

19) 《三國史記》 권 13, 高句麗本紀 1, 東明聖王 2년·6년·10년.

20) 고구려시조 주몽의 출자전승 중 동부여출자설과 북부여출자설은 후자가 먼저 성립되었다고 한다. 6세기 후반 이후 해부루천도설화와 금와왕설화로 구성된 동부여 건국전승이 북부여출자설에 덧붙여져서 동부여출자설이 성립하였는데, 그것이 《新集》에 수록되어졌고, 그 계통의 사서가 이어져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의 주몽전승이 되었다고 한다(盧泰敦, 앞의 글, 1993, 44쪽).

21) 盧泰敦, 앞의 글(1988).

22) 盧泰敦, 앞의 글(1993), 45쪽.

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나 《위략》 및 그 이후의 사서에 주몽이 동부여 출신으로 나오는 것은 고구려가 망한 후 후세 사람들이 잘못 가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sup>23)</sup> 고구려 왕실에서는 〈광개토왕릉비〉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시조인 주몽을 북부여의 왕자로 믿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동명성왕조에는 동명왕 10년(기원전 32)에 왕의 명령으로 북옥저를 멸망시키고, 14년에 주몽의 어머니가 동부여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다. 즉 같은 시기에 북옥저와 동부여가 병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그대로 신빙하느냐의 문제는 그만두더라도 이는 분명 고구려 초기에 북옥저와 동부여가 병존하고 있었던 것이 되므로, 동부여는 3세기에 부여족이 세운 새로운 정권으로 볼 수 없는 셈이다. 그런데 북옥저는 태조왕 이전 시기에 이미 고구려에 복속되어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따르면 기원을 전후하여 선비족의 일부 및 太子河 상류 일대의 梁脈, 힘의 공백지대였던 함경남북도 산간지대의 행인국·蓋馬國·句茶國과 두만강 하류의 북옥저 등도 이 무렵에 고구려에 정복되거나 복속되었다.<sup>24)</sup> 나아가 1세기 중엽 무렵에 那部체제가 수립되면서 고구려의 대외정복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sup>25)</sup> 먼저 고구려는 동해안 방면의 옥저<sup>26)</sup>와 동예<sup>27)</sup>를 복속시키고 이 지역의 풍부한 해산물을 확보하여 확고한 배후기지로 삼았다. 이에 따라 영흥만 일대는 태조왕 이래 고구려의 변방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광개토왕릉비〉의 守墓人기사 중 ‘東海賈’가 광개토왕 이전에 정복한 舊民임을 생각한다면<sup>28)</sup> 영흥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는 일찍부터 고구려의 영역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광개토왕의 동부여 원정이 舊土에 인접한 반도의 동해안지역의 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23) 리지린·강인숙, 《고구려역사》(사회과학출판사, 1977), 21~26쪽.

24) 《三國史記》 권 13, 高句麗本紀 1, 東明聖王 6·10년 및 권 14, 高句麗本紀 2, 大武神王 9년.

25) 余昊奎, 《1~4세기 고구려 政治體制 연구》(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7), 12~52쪽.

26) 《三國史記》 권 15, 高句麗本紀 3, 太祖大王 4년.

27)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濊.

28) 林起煥,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研究》(慶熙大 博士學位論文, 1995), 132~148쪽.



따라서 동부여는 동해안 일대에 실재했던 국가라기보다는 원부여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즉 송눈평원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던 원부여(북부여)의 세력과 달리, 길림 일대를 중심으로 서단산문화를 조영하면서 발전하던 예족의 세력이 송눈평원 일대 예맥족계의 한 지파가 이주해 와 새로이 성장하게 되자 이를 동부여(부여)라고 불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29)</sup>

## (2) 부여의 성장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따르면 동부여(부여)는 왕위가 金蛙王에게 계승되고 이어서 帶素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금蛙의 아들 대소는 22년 고구려의 해 살해되었는데 고구려는 비록 그 왕을 죽였으나 그 나라를 멸하지는 못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대소의 아우들이 추중자와 함께 鴨渌谷에 이르러 曷思水가에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sup>30)</sup> 또한 대소가 피살된 후 같은 해 부여 읍락의 대부분은 고구려에 투항하여 挾那部에 안치되어 絡氏라는 성을 하사받았다.<sup>31)</sup> 이후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연나부의 동부여인들은 상대적인 독립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적으로 압록강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동부여로 표기되는 집단의 분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고구려가 초기국가 건설과정에서 부여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였고, 또한 부여계의 주민집단이 고구려 국가 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1세기 초부터 부여의 명칭이 중국의 역사서에 자주 등장한다. 이는 부여가 흉노나 고구려와 함께 王莽의 新(8~23)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비칠 만큼 큰 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49년에 부여왕은 후한 光武帝에게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고, 광무제는 이에 후하게 보답하였다.<sup>32)</sup> 늦어도 이

29) 이는 <광개토왕릉비>의 주변지역 정복 기사 중 부여에 대한 정벌을 동부여로 표기하고 있는 점에서도 방증된다. 이 당시 부여는 아마도 ‘西徙近燕’한 후 선비에 쫓겨 다시 길림 일대의 원부여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0) 《三國史記》 권 14, 高句麗本紀 2, 大武神王 5년 4월.

31) 《三國史記》 권 14, 高句麗本紀 2, 大武神王 5년 7월.

32) 《後漢書》 권 85, 列傳 75, 東夷 夫餘國.

때에는 부여가 중국식 왕호를 사용하였고 중국인에게 국가적인 존재로 비칠 정도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중국은 부여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부여 서쪽의 선비와 남쪽의 고구려를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여의 등장을 환영하였다. 한편 부여도 농업에 바탕을 둔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고, 일찍부터 고구려나 서북쪽의 유목민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역시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동일한 발전단계에 있는 고구려 및 선비족과의 빈번한 접촉, 한족과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교환관계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49년 부여왕이 광무제에게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치고 朝服衣幘을 받았는데, 이 조복의책은 한에 대한 臣屬을 의미하는 동시에 각 족장에게 무역권의 부여를 상징하는 것이다.<sup>33)</sup> 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부를 생산하는 계급의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서기 2~3세기 초까지의 사실을 기록한 《위략》에 “그 나라는 매우 부유하고 선세 이래로 일찍이 파괴된 적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부여는 그 때까지는 국가적 성장이 지속되면서 國都의 천도나 남에게 큰 타격을 입는 일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2) 부여의 대외관계

### (1) 고구려와의 관계

부여와 주위의 여타 족속과의 관계 중 비교적 밀접한 것이 고구려와의 관계였다. 처음에 그들 사이에는 군사적 연맹이 성립되어 있었으나, 고구려의 역량이 부여를 능가한 이후에는 곧바로 부여를 병탄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여는 한과 함께 공동으로 고구려에 대항하게 되고, 그 결과 고구려와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어 결국 고구려에게 병합되었다.

부여가 아직 강성하였던 기원전 1세기에 그 남쪽에서는 고구려가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처음 부여로부터 도망

33) 金哲垸, 《韓國古代國家發達史》(春秋文庫, 1975), 61쪽.

와서 계루부를 건국하였다.<sup>34)</sup> 따라서 초기에는 부여와 새로 건국된 같은 예맥계통의 나라인 고구려는 우호적 관계였다. 부여가 고구려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 先王(金蛙王)이 그대의 선왕인 동명왕과 서로 사이가 좋았다”<sup>35)</sup>고 한 것은 고구려 건국 초기에 두 나라가 화친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태조대왕 25년(77)에 “부여가 사신을 보내어 뿔이 세 개 달린 사슴과 긴 꼬리의 토끼를 바쳤다”는 기사와, 같은 왕 53년에 “부여가 사신을 보내어 호랑이를 바쳤다”는 기사도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태조대왕 69년(121)에 “왕이 부여에 행차하여 태후의 廟에 제사하였다”<sup>36)</sup>는 기사를 통해서도 화친관계가 돈독했음을 알 수 있다.

건국 초기부터 예측 및 화친관계를 유지하던 고구려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부여는 힘에 의해 고구려 왕실을 계속 예측시키려고 하였다. 처음에 부여는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어 불모교환을 요구하였다. 이 때 국력이 아직 약하였던 고구려는 하는 수 없이 태자 都切을 불모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도절이 두려워 가지 않자 이에 분개하여 부여에서는 5만 명의 군사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sup>37)</sup> 그 후에도 부여는 외교적 방법으로 고구려 왕실을 계속 위협함으로써 고구려를 예측시키려고 하였다. 9년에 부여는 고구려에 보낸 편지에서 부여와 고구려를 大國과 小國의 관계로 표현하고 소국인 고구려가 대국인 부여를 섬기는 것은 옹당한 도리라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부여의 요구를 듣지 않을 때에는 고구려왕조를 더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무력행사의 의사까지 드러냈다.<sup>38)</sup> 이에 대해 고구려는 아직 부여와 싸울 만한 힘이 없었으므로 겉으로는 부여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여와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장차 부여와의 싸움을 위하여 국력을 키워 나가려고 하였다.<sup>39)</sup> 그 후 고구려의 세력이 급속히 강화됨에 따라 두 나라 사이의 역량은 점차 균형상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34) 盧泰敦, 앞의 글(1993), 37~68쪽.

35) 《三國史記》 권 13, 高句麗本紀 1, 琉璃明王 28년 8월.

36) 《三國史記》 권 15, 高句麗本紀 3, 太祖大王 25년 10월 · 53년 정월 · 69년 10월.

37) 《三國史記》 권 13, 高句麗本紀 1, 琉璃明王 14년 정월 · 11월.

38) 《三國史記》 권 13, 高句麗本紀 1, 琉璃明王 28년 8월.

39) 위와 같음.

13년 부여는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고구려군의 매복에 걸려 鶴盤嶺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sup>40)</sup> 이것은 부여의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 우세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여는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점차 열세에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고구려는 부여로부터의 위협과 압력을 제거하고 그 지역을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마침내 부여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하였다.

고구려군이 22년 2월에 부여의 남쪽 계선에 이르자 이에 대항하여 부여는 전국적 군사들을 총동원하였다. 그리하여 지금의 휘발하유역으로 추정되는 부여의 남쪽 진펄지대에서 두 나라 군대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sup>41)</sup> 이 전쟁에서 부여는 비록 고구려군을 물리쳤으나 국왕과 수많은 군사들을 잃어버렸다. 또한 부여왕의 죽음을 계기로 통치층 안에서 불안과 동요가 일어났으며 그 결과 고구려로 넘어가는 자들이 늘어났다. 대소왕이 죽자 그의 동생(금와왕의 막내아들)은 22년에 曷思水에 이르러 갈사국을 세웠다.<sup>42)</sup> 같은 해에 금와왕의 사촌동생이 1만여 명을 이끌고 가서 고구려에 투항하였다. 고구려 왕실에서는 그를 연나부지방에 안착시키고 ‘絡’씨라는 성을 주어 특별히 우대하였다.<sup>43)</sup> 이같은 전쟁과 대소왕의 전사를 계기로 통치층 안에서 일어난 와해상태는 부여의 국력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2세기를 넘어서면서 부여는 고구려의 발전을 견제하기 위하여 후한과 밀접한 외교관계를 전개하였다. 또한 평야지대이면서 농사에 유리했던 요동군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립하였다. 105년 고구려는 요동군의 6현을 일시 빼앗았으나 격퇴되고, 111년에는 부여가 낙랑군을 공격하였다. 118년에는 고구려가 현도·낙랑을 공격하였고, 2년 뒤인 120년에도 현도성을 공격하자 부여는 고구려 군대에 맞서 싸웠다. 120년에 부여왕이 尉仇台를 후한에 파견한 것도 고구려의 현도성 공격과 관련된 것으로, 《후한서》孝安帝紀의 “부여왕이 아들을 보내어 병사를 거느리고 현도성을 구원하고 고구려·마한·예맥

40) 《三國史記》 권 13, 高句麗本紀 1, 琉璃明王 32년 11월.

41) 《三國史記》 권 14, 高句麗本紀 2, 大武神王 5년 2월.

42) 《三國史記》 권 14, 高句麗本紀 2, 大武神王 5년 4월.

43) 《三國史記》 권 14, 高句麗本紀 2, 大武神王 5년 7월.

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마침내 사신을 보내 공헌하였다<sup>44)</sup>”는 기사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삼국사기》에도 고구려 태조왕 69년(121)에 “왕이 마한·예맥의 1만여 기를 거느리고 나아가 현도성을 포위하였다. 부여왕이 아들 위구태를 보내어 병사 2만을 거느리고 한나라 병사와 힘을 합하여 맞서 싸웠으므로 아군이 대패했다”는 기사와 또 1년 뒤에 “왕이 마한·예맥과 함께 요동을 침략함에 부여왕이 병사를 보내어 현도를 구원하는 동시에 우리 군을 깨뜨렸다”고 한 기록은<sup>45)</sup> 고구려의 활발한 요동진출을 견제하기 위하여 부여가 후한과 밀접한 군사외교를 전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부여가 북방의 한랭한 땅인 송화강유역에서 온난한 요하유역으로 진출을 기도한 것이나, 고구려가 압록강 중류의 산간지대에서 농경지로서 혜택을 입은 요동군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것은 그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요청이었을 것이다. 어찌보면 후한정권은 이러한 대립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민족 지배정책을 실시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sup>46)</sup>

그러나 부여는 3세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서쪽에서 성장하는 선비의 세력과 고구려의 압력에 의하여 국가적 성장이 저지되고 국력이 점점 쇠약해졌다.

## (2) 중국과의 관계

부여와 중국과의 관계는 초기 단계부터 비교적 우호적이었으며, 일시적으로 정략결혼과 공수동맹이 맺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5호16국의 혼란기에 들어가면서 부여는 중국 동북면에서 크게 강성해진慕容氏 燕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어 그 세력이 약해지게 되었다.

서한 초에는 흉노가 강대하여 북부의 예맥족은 중국과 隔絶되어 漢왕조와는 관계가 비교적 적었다. 한 무제가 위만조선을 정복한 후에 부여와 한왕조는 점차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속관계를 맺어 부여는 한왕조로부터 그 國君에게 주는 印綬를 받았다. 서한시대 말기에 왕위를 찬탈한 王莽은 건국한 원년(기원 9)에 새로운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사신을 사방에 보

44) 《後漢書》 권 5, 帝紀 5, 孝安帝 延光 원년 2월.

45) 《三國史記》 권 15, 高句麗本紀 3, 太祖大王 69년 12월·70년.

46) 井上秀雄, 《古代朝鮮》(日本放送出版協會, 1972), 39~40쪽.

내어 옛날 한의 인수를 거두어 들이고, 다시 새로운 왕실의 인수를 주었다. 이 때 “동으로 나간 사신은 현도·낙랑·고구려·부여에 이르렀다”<sup>47)</sup>고 한다. 이 기사를 통해 부여는 이미 왕망 이전부터 서한왕조의 인수를 받았으며, 따라서 왕망 때에 이르러 改授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부여와 한왕조와의 관계가 진일보하게 된 것은 후한 초부터였다. 우선 《후한서》동이열전 부여조와 본기에 의거해서 후한과의 교섭관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부여와 후한의 외교관계 기사

연 대	관 련 내 용
1. 光武帝 建武 25년(49)	夫餘王遣使奉貢 光武厚答報之 於是 使命歲通
2. 安帝 永初 5년(111)	夫餘王始將步騎七八千人 寇鈔樂浪 殺傷吏民 後復歸附
3. 安帝 永寧 원년(120)	(夫餘王)乃遣嗣子尉仇台 詣闕貢獻 天子賜尉仇台印綬金綵
4. 安帝 延光 원년(122)	夫餘王遣子(尉仇台) 將兵救玄菟 擊高句麗 馬韓 穢貊 破之
5. 順帝 永和 원년(136)	其王(夫餘王)來朝京師(洛陽) 帝作黃門鼓吹 角抵戲
6. 桓帝 延熹 4년(161)	(夫餘王)遣使朝賀貢獻
7. 桓帝 永康 원년(167)	王(夫餘王)夫台 將二萬餘人 寇玄菟 玄菟太守公孫域擊破之 斬首千餘級
8. 靈帝 熹平 3년(174)	(夫餘)復奉章貢獻

후한정권은 건무 8년(32)에 동북의 각 종족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祭彭은 41년에 요동태수가 되어 은혜를 베풀고 위엄을 부렸는데 이를 계기로 각 종족은 한왕조와 우호관계를 회복하였다. 동북지구에서 세력이 강대했던 부여는 49년에 한에 降附하여 후한왕조와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였다.

47) 《漢書》권 99, 列傳 69, 王莽.

같은 해 겨울 부여왕은 사신을 보내어 한조정에 봉헌하였는데 한의 통치자는 후하게 보답하였고, 이로 인하여 “命하여 사신이 해마다 통하게 했다”<sup>48)</sup>고 한다.

대외적으로 부여는 남으로부터 고구려의 위협과 서쪽 유목민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부여는 이 양대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요동의 중국세력과 연결을 꾀하였다. 중국측도 선비족과 고구려의 결속을 저지하고 이들을 제압하는데 부여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부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에 걸쳐 부여와 한왕조는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한왕조는 부여에 대해 두터운 예우로써 대접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120년에는 부여왕자 尉仇台가 후한 낙양에 가서 공물을 바쳤고, 2년 뒤에는 위구태를 현도성에 보내어 고구려의 침입에 맞서 한을 구원하였다. 136년에는 부여왕이 친히 京師에 가서 조공하였는데, 이 때 한의 통치자는 헤어질 때에 ‘黃門鼓吹와 角抵戲를 해서 보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이례적으로 접대를 하였다. 또한 역대 부여왕이 죽은 후에는 玉으로 만든 관을 썼는데, 한왕조가 “미리 옥갑을 현도군에 가져다 놓고 왕이 죽으면 현도군에서 가져다가 쓰게 했다”<sup>49)</sup>는 것은 부여와 한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부여는 후한과의 화친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고구려에도 사신을 보냈는데, 이는 고구려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2세기는 부여와 고구려가 서로 견제하면서 요동평야로 진출을 시도하였던 시기이다. 현도·낙랑 양군은 명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동군에 흡수되어 있었다. 이 당시는 후한왕조가 적극적인 동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동태수를 중심으로 하는 군현세력과 부여·고구려 三者가 요동평원을 사이에 두고 각축을 벌이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2세기 초에 이르러 부여와 후한 사이에는 일시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사서에 기재된 것을 보면 부여와 후한왕조 사이에는 두번의 마찰과

48) 《後漢書》 권 85, 列傳 75, 東夷 夫餘國.

49) 위와 같음.

전쟁이 있었다. 첫번째는 111년에 부여왕이 “步騎 7·8천 인을 거느리고 낙랑을 노략질하고, 吏民을 살상한 후에 다시 귀부하였다”고 한다.<sup>50)</sup> 다음으로는 167년에 부여왕 夫台가 2만 명을 거느리고 현도군을 약탈하니 현도태수 公孫域이 그것을 격파했다고 한다. 이들 기사는 부여와 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생각할 때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교가 단절되었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174년부터 다시 국교가 회복되어 부여왕은 “다시 奉章 공헌하였다”<sup>51)</sup>고 한다.

부여와 후한 양측 사이에는 그 뒤에도 밀접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2세기 말경 公孫度이 요동에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동방의 패자로 군림했을 때 부여는 후한세력과의 관계 때문에 화친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공손탁의 宗女와 결혼하여 일종의 혼인동맹을 맺었다. 이후 魏가 공손씨를 멸망시킨 다음 幽州刺史 毌丘儉을 보내어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에(244~245) 현도태수 王頎가 부여를 방문하였고, 이에 부여의 權臣인 大使 位居는 大加를 시켜 위군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군량을 제공하였다.

한편 부여는 장기간 현도군의 관할 아래 있었는데, 한 무제시기에는 부여의 요청에 따라 요동군 관할로 바뀌게 되었다.<sup>52)</sup> 그리하여 한왕조의 명령과 征調에 대해 부여는 충실히 이를 집행하였다. 121년 마한·예맥의 군사 수천 명을 거느리고 현도를 포위하였을 때 부여왕은 아들 위구태를 보내어 2만의 대군을 이끌고 가서 힘을 합해 고구려군을 격파하여 5백여 級을 참수하였다고 한다. 이후에 고구려가 처음으로 중국의 통제하에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예맥이 모두 복종하니, 동쪽 변방에 일이 적어지게 되었다”<sup>53)</sup>고 하였다.

이처럼 중국과 관계를 맺고 국가적 성장을 지속하던 부여는 285년에 이르러 요하 상류에서 일어난 선비족 출신의 慕容廆<sup>54)</sup>의 침략을 받아 국가적

50) 위와 같음.

51) 위와 같음.

52) 이는 부여가 현도군이 아니라 요동군을 통하여 후한 왕실과 거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부여와 현도군 사이의 관계가 오래 전부터 악화되어 있었고 167년 부여군의 현도 공격도 이와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부여사〉, 《조선전사》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9, 147쪽).

53) 《後漢書》 권 85, 列傳 75, 東夷 高句麗.

54) 모용씨는 선비족으로 ‘廆’ 때에 요하 상류에서 일어나 앞서 부여를 공파하여



인 위기에 처하였다. 부여는 저항다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왕 依慮는 자살하였으며 많은 자제들이 沃沮(北沃沮)<sup>55)</sup>로 망명하였다. 한편 부여의 본국은 의려가 자살한 다음 해에 의려의 아들 依羅에 의하여 나라가 재건되었으나 이 재건된 부여국은 이미 그 옛날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무력한 것이었다.

### (3) 부여의 쇠퇴와 부흥운동

3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부여국은 격심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변정세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른 것이었다.

부여는 지형상으로 대평원지대에 자리잡고 있어 외침을 방어하는 데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부여지역은 유목민과 농경민이 서로 교차하는 중간지대로서 주변세력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을 민감하게 받았다. 특히 3세기 중반 이후 중국의 통일세력이 무너지고 유목민세력이 흥기하여 동아시아 전체가 격동의 시기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더욱 그러하였다. 남쪽으로부터 가해지는 고구려의 압력과 서쪽의 선비족의 세력팽창에 의하여 여러 차례 공략을 당하였다. 급기야 285년에는 선비족 모용외에 의하여 수도가 함락되고 1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또 국왕 의려는 자살하였고 부여 왕실은 北沃沮방면으로 피난하였다.<sup>56)</sup> 이듬해 의려를 이어 의라가 왕위를 계승한 뒤 晋의 東夷校尉 何龕 군대의 지원을 받아 선비족을 격퇴하고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다.<sup>57)</sup> 吉林의 都城을 회복한 뒤에도 모용씨의 거듭된 침입을 받게 되었

(285) 東走케 하고, 또 요서지방을 침략하여 棘城(현 錦州부근)지방에 도읍하더니(294) 그의 아들 慕容皝은 스스로 '燕王'이라 일컫고 얼마 아니하여 龍城(지금의 朝陽)으로 천도하여(342) 위세를 떨쳤으므로 바로 이 해에 모용황은 대대적으로 고구려에 침입하여 고국원왕을 달아나게 하고, 용성 천도 4년 후(346) 마침내 부여까지 침략하였다.

55) 沃沮를 동해안지방으로 비정하는 설(李丙燾, 앞의 글)과 간도지방의 北沃沮(池內宏, 〈夫餘考〉, 《滿鮮史研究》上世篇 1, 東京; 祖國社, 1951, 459·462~464쪽)로 보는 설이 있는데 대체로 두만강유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魏書》권 100, 고구려전에 보이는 435년경 '東至柵城'했다는 柵城이 바로 이곳에 설치한 고구려의 鎭城일 것으로 보고 있다.

56) 《晉書》권 97, 列傳 67, 東夷 夫餘.

57) 위와 같음.

고, 포로가 된 부여인들은 북중국에 노예로 전매되어 갔다. 부여는 西晉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는 전과 같지 못하였다. 한편 진이 북방민족에게 쫓겨 남침하게 되고(316~317) 쇠망함에 따라 부여는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완전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부여는 4세기에 들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원래의 중심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서쪽으로 그 근거지를 옮기게 되었다.

《資治通鑑》권 97, 晉紀 19 穆帝 永和 2년(346) 정월조에는 “처음 부여는 鹿山에 거하다가 백제의 침략을 받게 되어 부락이 衰散해졌는데, 서쪽으로 연 가까이 옮기고는 방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여가 346년 모용씨의 침입을 받기 이전에 백제의 침략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이를 4세기 초에 있어서 백제의 해상 발전, 나아가서는 요서 진출의 한 근거로 보려는 설이 있어 왔다.<sup>58)</sup> 그러나 이 백제는 전술했듯이 고구려나 물길의 誤記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sup>59)</sup> 부여는 고구려(또는 물길)의 침략을 받은 후 서쪽으로 燕 가까이에서 고립무원의 상태로 있다가 346년 前燕王 慕容皝이 보낸 世子 慕容儁과 慕容恪·慕容根 휘하의 1만 7천 명의 침략을 받아 국왕 玄 이하 5만여 명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타격을 받았다.<sup>60)</sup> 비록 전연왕은 현에게 ‘鎮東將軍’의 작위를 주는 한편 그를 사위로 삼는 등 회유책을 쓰기도 했으나 이로써 부여는 그 중심세력을 잃고 말았다. 이 때부터 부여는 전후로 전연과 前秦에 臣屬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이 당시 부여가 완전히 멸망한 것으로 보는 설이 있다.<sup>61)</sup> 346년 이후 부여의 故土는 전연의 소유하에 들어가게 되고, 370년 이후에는 고구려에 병합되어 그 판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았다. 이 주장의 근거는 〈牟頭婁墓誌銘〉에 대사자 모두루가 ‘令北夫餘守事’를 지냈고, 광개토왕 때 북부여를 진수하였다는 내용 및 《위서》 고구려전에 435년경의 고구려 국경선이 “북으로 옛 부여에 이르렀다”는 기사에 두고 있다. 그리고 494년 부여왕이 처자를 데리고 와서 나라를 바치고 항복하였다는 기록은<sup>62)</sup> 찬자의 잘못으로 본다.<sup>63)</sup>

58) 鄭寅普, 《朝鮮史研究(下)》(서울신문사, 1947), 202~205쪽.

59) 盧泰敦, 앞의 글(1989), 48~50쪽.

60) 《晉書》권 109, 載記 9, 慕容皝 3년.

61) 李丙燾, 앞의 글.

62) 《三國史記》권 19, 高句麗本紀 7, 文咨明王 3년 2월.

부여는 346년 모용황의 침입으로 국세가 기울어졌다. 그러나 《진서》나 《자치통감》의 자료만으로는 부여의 멸망을 단언하기 어렵다. 《위서》高宗紀의 文成帝 太康 3년(457)조에는 “于闐(코탄)·부여 등 10여 국이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晉書》권 111, 載記 11 慕容暉조에 의하면 前秦의 苻堅이 370년 苻의 무리 10만 군을 거느리고 전연의 수도 鄴를 쳤을 때, 전연의 散騎侍郎 餘蔚이 ‘夫餘質子’를 거느리고 밤에 성문을 열어 부견의 군사를 맞아들였다고 한다. 이로 보아 346년 이후에 부여가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sup>64)</sup> 《자치통감》권 102, 晉紀 24 海西公 下조에는 《진서》의 내용보다 더 자세한 기사가 보인다. 이에 의하면 여율이 부여·고구려 및 上黨 質子 5백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細註에 여율을 부여 왕자라고 하고 있어 복잡한 추리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용씨가 부여를 공멸한 뒤 그 구토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잡아 놓은 인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sup>65)</sup> 따라서 346년 모용씨의 침입으로 부여가 완전히 멸망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부여의 세력이 거의 와해되기는 하였으나 그 주민들과 영토는 전연과 전진에 신속된 상태로 존재하였고, 여전히 고구려와 물길의 進攻 목표로 존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46년 당시 燕軍은 부여에 한 차례 타격을 가한 후 곧바로 귀환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부여의 수도에 계속 머물며 그 영역을 직접 지배하기 위해서는 당시 서쪽으로 後趙와 대치하고 있었고, 동으로는 고구려와 전쟁을 치른 후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연으로서는 상당한 병력의 유지와 계속적인 전쟁을 감수하여야만 했기 때문이다.<sup>66)</sup> 연군이 돌아간 후 부여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였다. 연이 북중국 방면으로 진출함에 따라 부여에 대한 연의 압력이 퇴조하였고, 고구려도 연의 침공으로 입은 타격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백제세력과의 대결에 급급하였다는 주변정세의 변동에 힘입어 다시 부여국의 명맥을 잇게 되었던 것이다.<sup>67)</sup>

63) 李丙燾, 《韓國史》古代篇(震檀學會, 1959), 416~417쪽.

64) 金毓黻, 《東北通史》(臺北, 1971), 256~257쪽.

65) 池培善, 《中世東北亞史研究》(一潮閣, 1986), 204쪽.

66) 盧泰敦, 앞의 글(1989), 43~44쪽.

67) 盧泰敦, 위의 글, 44쪽.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부여의 세력은 광개토왕의 정복에 의해서 비로소 고구려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부여에 대한 대규모 정벌은 먼저 고구려에 의해 5세기 초에 단행되었다. <광개토왕릉비>에는 이 사실에 대하여 “동부여는 옛날에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중년에 배반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다. 20년 庚戌에 왕은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였다. 왕의 군대가 餘城에 이르니… 왕의 은덕이 널리 퍼졌으므로 이에 개신하였다. … 무릇 대왕이 攻破한 城이 64개요, 村이 1,400개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여기서 동부여는 부여를 가리키는 것이고,<sup>68)</sup> 동부여가 옛날에 추모왕(동명성왕)의 속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은 광개토왕의 부여정벌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물론 광개토왕대에 부여에 대한 정벌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이나, <광개토왕릉비>에 이 해의 사실만을 대서특필한 것으로 보아 永樂 20년(410)의 정벌이 가장 큰 규모의 것이었음은 의심할 바 없다. 이 때 광개토왕이 여성에 진공하였다는 것은 부여가 큰 타격을 받은 것을 뜻하며, 기본적으로 중심지역에 남아 있던 부여의 세력을 멸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때 64개 성, 1,400개의 촌락을 격파하였다는 기록은 對동부여전의 전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sup>69)</sup> 이는 대개 광개토왕의 통치 전기간에 있었던 전과로 주로 백제지역 정복과 관련된 城村으로 보고 있다.<sup>70)</sup>

광개토왕이 부여성에 진공하였다는 것은 부여가 이 때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영역 및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수왕대인 435년에 고구려를 방문한 북위의 사신 李傲가 당시 고구려의 영역이 “북으로 구부여에 이른다”<sup>71)</sup>고 보고하였을 것이다. 410년 고구려의 부여정벌로 부여의 대다수 주민과 광대한 지역이 고구려에 속하게 되었다. 이제 부여 왕실은 고구려의 지배하에서 고구려의 부여지역 지배를 위한 방편으로 겨우

68) 王健群, 《好太王碑研究》(吉林人民出版社, 1984; 林國本·繆光禎 翻譯, 《好太王碑の研究》, 208쪽).

69) 박시형, 《광개토왕릉비》(1966), 207쪽.

孔錫龜, 〈廣開土王陵碑의 東扶餘에 대한 고찰〉(《韓國史研究》 70, 1990).

70) 〈廣開土王陵碑〉(《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1992), 29쪽.

71) 《魏書》 권 100, 列傳 88, 高句麗.

그 명맥을 유지할 뿐이었다. 이오는 435년 당시 고구려의 영토가 동으로 柵城<sup>72)</sup>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 책성에 대해서는 동부여의 두만강유역으로 보고 있는데, <광개토왕릉비>에서 말하는 여성이 곧 책성으로 두만강유역의 동부여가 책성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sup>73)</sup>

《삼국지》동옥저조에는 고구려 동천왕이 관구검의 침입으로 ‘置溝婁’로 피난했다고 하였는데, 이 치구루는 ‘買溝婁’의 착오이며 책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동부여의 味仇婁<sup>74)</sup>나 守墓人 기사 중 賣勾余로 추정하여 연해주 일대의 동부여지역이 광개토왕 때 편입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sup>75)</sup> 그러나 책성은 치구루와 같은 곳이지만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고구려왕을 따라간 부락집단으로서 ‘△△△味仇婁’와는 다른 실체이다. 이 책성은 일찍이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던 북옥저지역에 설치된 것으로서 동부여를 멸망시키고 둔 것은 아니다. 이미 태조왕 이전부터 고구려의 복속하에 있던 북옥저지역을 광개토왕이 다시 대대적인 군사적 정복을 할 리는 없는 것이다. <광개토왕릉비>에서는 쇠약해진 부여의 수도(길림 일대)를 광개토왕이 공파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후 부여는 급속히 약화되어 5세기 말까지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때 부여의 지배하에 있던 물길족의 저항이 거세졌으나,<sup>76)</sup> 당시의 부여는 물길의 반발을 제압할 만한 힘이 없었다. 그 뒤 부여는 457년 북위에 조공을 하여 한 차례 국제무대에 얼굴을 내밀었다.<sup>77)</sup>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시도에 불과하였고, 고구려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회복할 수 없었다. 한편 5세기 말 동만주 삼림지대에 거주하던 靺鞨의 전신인

72) 柵城은 오늘날의 훈춘시 외곽의 八連城으로 비정되어 왔으나 팔련성에서는 발해시대의 유물만 출토되므로 이곳은 발해의 東京龍原府(柵城府) 자리이고 고구려시대의 책성은 팔련성 부근 5리 지점에 있는 고구려성인 溫特赫部城으로 비정되기도 하나 현재 그것을 입증할 고고학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73) 李龍範, <高句麗의 成長과 鐵> (《白山學報》 1, 1966), 5~57쪽.  
盧泰敦, 앞의 글(1989).

74) 味仇婁는 《三國志》 卅丘儉傳에 나오는 북옥저의 置溝婁(=買溝婁)와 같은 것으로서 대개 두만강유역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75) 島田好, <東扶餘の位置と高句麗の開國傳說> (《靑丘學叢》 16, 1934).

76) 《魏書》 권 100, 列傳 88, 高句麗.

77) 《魏書》 권 5, 帝紀 5, 高宗文成帝 太安 3년 12월.

勿吉이 흥기하여 고구려와 상쟁을 벌이고, 동류 송화강을 거슬러 그 세력을 뻗어나갔다. 이에 따라 부여는 그 침략을 받게 되고, 부여 왕실은 고구려 내지로 옮겨지게 되었다. 드디어 부여는 494년에 국왕과 그 일족이 고구려에 망명·항복해 옴으로써 그 여맥마저 완전히 꺼져 버리고 말았다.<sup>78)</sup> 이때 멸망한 부여는 고구려의 보호 아래에 있던 吉林省 일대의 原부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고구려와 魏·晉시기에 크게 성장한 선비 모용씨의 침입을 받아 동쪽으로 이동하였던 부여족의 일파가 건국한 부여만이 고구려의 보호 아래 5세기까지 존속하였다. 그러나 494년에 이르러 물길의 흥기로 그 왕족이 고구려에 투항함으로써 만주지역의 부여는 소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여의 주민집단이 고구려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일단의 잔류세력이 서북쪽으로 옮겨가 豆莫婁國을 형성하였다.<sup>79)</sup> 《위서》 열전 豆莫婁傳은 두막루가 舊부여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서》 두막루전은 “두막루국은 물길 북쪽 천 리에 있는데… 옛날 북부여이다”라는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삼국지》 부여조의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런데 《신당서》 권 220, 열전 145 流鬼傳에는 “達末婁는… 북부여의 후예이다. 고구려가 그 나라를 멸하자, 그 유민이 那河를 건너 그 곳에 살았다”고 하여 달말루, 즉 두막루국에 관하여 아주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나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오늘날의 눈강과 제1송화강 합류점 일원으로 비정하여, 이 강을 건넌 부여인들이 호네펍원 또는 송네펍원 일대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sup>80)</sup>

〈宋鎬最〉

78) 《三國史記》 권 19, 高句麗本紀 7, 文咨明王 3년 2월.

79) 金貞培, 〈豆莫婁國 研究〉(《國史館論叢》 29, 1992), 71~80쪽.

魏國忠, 〈豆莫婁國考〉(《學習與探索》 3期, 1982), 137쪽.

張博泉, 〈魏書豆莫婁傳中的幾個問題〉(《黑龍江文物叢刊》 2期, 1982).

80) 李健才, 《東北史地考略》(吉林文史出版社, 1986), 38쪽.

董萬倫, 《東北史綱要》(黑龍江人民出版社, 1987), 108쪽.

한편 두막루인들은 점점 주변의 실위나 물길 등의 영향을 받아 8세기경에 이르러 그 이름을 잃어 버리고 부여국의 존재 또한 이 때서야 사라진다고 보기도 한다(金貞培, 위의 글, 79~80쪽).

### 3. 부여의 정치와 사회

#### 1) 중앙과 지방의 통치조직

##### (1) 중앙통치조직

부여에는 중앙관직으로 王이 있었고, 그 밑에 여섯 가축으로 이름을 정한 馬加·牛加·豬加·狗加·大使·大使者·使者 등이 있었다.<sup>1)</sup>

부여는 일찍이 국가체제를 형성하였으므로 정치발전이 후진적이었던 주변 사회와는 달리 國王이 존재하고 있었다. 부여왕은 이전 예맥사회 단계의 濊城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濊王之印’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sup>2)</sup> 이 예성에 거처한 부여 왕에게도 國璽가 있었을 것이다. 부여의 왕위계승도 嫡長子 세습제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삼국유사》 紀異篇의 동부여조에 나오는 “金蛙에 뒤이어 그의 맏아들 帶素가 태자가 되었고 그에 의하여 왕위가 계승되었다”는 이야기는 부여의 왕위가 세습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후 사회 발전과 함께 왕권도 강화되어, 3세기 전반 부여의 왕위는 簡位居－麻余－依慮로 이어지는 부자계승이 확립되었다. 특히 마여의 경우 孽子라는 단서가 있음에도 왕위에 올랐고, 또 그 아들인 의려가 6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즉위한 것은 왕위의 부자상속이 원칙이었음을 말해준다.<sup>3)</sup>

당시 부여의 왕권은 부자세습의 원칙하에 안정되어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일정한 집권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삼국지》 부여조에 부여의 尉仇台 왕에게 요동의 公孫度이 외교적 조치로 그의 宗女를 출가시켰다는 사실은 당시 위구태왕에게는 국제적으로 인정될 만한 국가적 통제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점은 부여의 국가적 부강과 응집력을 시사해주는 “그 나라는 선세 이래로 일찍이 파괴된 적이 없었다”<sup>5)</sup>는 기사에 의해서도 방증된다.

1)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2) 위와 같음.

3) 위와 같음.

4) 위와 같음.

그러나 부여의 왕은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군주는 아니었다. 왕의 권력은 귀족들의 합의기구에 의해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 왕은 일정한 家系에서 나왔을 테지만 選任되었고, 왕은 ‘加’들의 대표로 군림하였으나 초월적 존재는 되지 못하였다. 마여의 경우는 諸加가 共立하였고, 의려의 경우는 ‘立以爲王’이라 하였으므로 역시 제가의 관여 속에 임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sup>6)</sup> 또한 옛날 부여의 습속에 날씨가 고르지 못하여 수해나 한해가 생기고 그 해의 농사가 흉년이 들면 그 허물을 곧 왕에게 돌려 죽이거나 교체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방증해준다.<sup>7)</sup> 이처럼 전성기인 2~3세기의 부여왕은 권력자이면서도 귀족의 대표자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종의 귀족이라 할 수 있는 제가에 의해 공립되는 면이 강했다.<sup>8)</sup>

부여사회에서 제가는 국가의 최고 관리로서 지방 행정사무를 관할하였다. 처음에 ‘가’<sup>9)</sup>는 일정지역의 족장으로서 부족원에 의해 선출되어 군사·재판·제사 등의 중요업무에 대한 집행책임자에 지나지 않았으나, 부족사회의 발전에 따라 귀족화되었다. 즉 국가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족적 유대감이 강한 단위 정치체의 대소 족장세력이었던 가들은 연맹과 결속을 통하여 집권적 국가의 지배신분층으로 결집되어 가면서 점차 중앙의 관명인 大官·長官 직명을 띠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이들 제가는 주로 하호를 통치하였는데 세력의 크기에 따라 수천 家 혹은 수백 가의 戶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들은 평소에는 귀족 족장으로서 부락을 지도하였고, 적이 있으면 군

5) 위와 같음.

6) 부여의 왕위계승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諸加들이 제한적으로 관여하여 諸加評議에 의한 選舉제도 검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족장회의에서 맹주를 선거로 추대하던 방식의 遺制일 것이다.

7)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8) 井上秀雄, 〈朝鮮の初期國家〉(《日本文化研究所研究報告》1, 1976), 78~79쪽.

9) ‘加’는 대개 고구려어의 ‘皆’, 신라어의 ‘翰·干’ 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래는 部族長을 의미하였는데, 뒤에 왕 또는 대관의 칭호가 되었다는 견해(金哲堧, 《韓國古代國家發達史》, 春秋文庫, 1976, 63쪽 및 李丙燾, 〈夫餘考〉《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214쪽)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加는 만몽계통의 汗(Han, Kan)·可汗(Gahan, Kagan)과 같은 말로 ‘귀한 사람’ 또는 ‘큰 어른’을 가리키는 존칭어로서 어떤 특정한 벼슬이름은 아니었다고 이해된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부여사〉, 《조선전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128쪽).

10) 李丙燾, 위의 글, 214쪽.



사령관으로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진장에 나가 싸웠다.<sup>11)</sup> 그러나 이들 제가들은 연맹 단계의 국가에 참여할 때 이미 대외교섭권이나 무역권 등을 국왕에게 빼앗겼고,<sup>12)</sup> 비록 자체적으로 속관을 둘 정도로 자치권이 인정되었지만<sup>13)</sup> 그것도 국왕의 영도력을 인정하는 조건 아래에서 새로이 편성된 지역의 백성을 지배하는 정도였다.

이후 부여에서는 제가들 중에서 국왕 직속의 관리가 되었던 大使職이 많은 권한을 가져 정치적 비중이 한층 더 높아졌다.<sup>14)</sup> 마여왕 때에 牛加의 조카인 位居가 대사가 되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季父인 우가와 그 아들을 반역혐의로 처형까지 한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sup>15)</sup> 원래 ‘使者’류는 씨족 내부에서 신분이 열등한 자로 租賦를 통책하는 관리였다. 그러나 점차 그 기능이 중요시되어 여러 층의 사자로 분화되어 가는 가운데 위계가 높아져 행정적 관료로 성장하였다.<sup>16)</sup> 이들 중 최고의 직위인 대사는 외교를 전담하고 大加를 지휘하기도 하며 우가를 단죄하는 등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의 정치기구에서 대사직을 내외 행정실무를 관장한 최고관직이며, 가층을 포괄하는 국정실무의 최고위직이었다고 보기도 한다.<sup>17)</sup> 그러나 부여의 정치기구는 국왕 직속의 정치조직과 제가 직속의 정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사·사자 등 외교·군사적 업무를 주로 담당한 관료도 있었지만 이들이 제가와 구분되어 특정 직능을 분장한 官階로서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고구려의 경우 대사자·사자의 직함을 띠고 있는 인물은 모두 方位部 출신으로 국왕 밑의 중앙관리였는데, 그 정치적 비중으로 보아 대체로 諸加階級에 해당하는

11)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12) 盧泰敦,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研究〉(《韓國史論》 2, 서울대, 1975), 132쪽.

13) 고구려에서 使者·皂衣·先人 등이 王의 직속 벼슬인 동시에 諸加들에 속한 벼슬이었던 예로 보아 부여에서의 大使·사자도 중앙벼슬인 동시에 제가들의 밑에 속한 벼슬이름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부족제사회가 고대국가의 형태로 변할 때 수반되는 舊制의 잔재 유풀이라 하겠다.

14) 井上秀雄, 〈夫餘國王と大使〉(《柴田實記念日本文化史論叢》, 1976), 78쪽.

金光洙, 〈夫餘의 ‘大使’職〉(《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1993), 63~68쪽.

15)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16) 金哲垸,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17) 金光洙, 앞의 글, 63~68쪽.

인물로 보고 있다.<sup>18)</sup> 즉 중앙의 귀족들인 제가급 인물들이 대사자·사자 등 하위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여의 경우도 관계의 명칭이 고구려와 거의 비슷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부여의 정치는 왕을 중심으로 하여 그 밑에 국무를 관장하는 귀족세력으로서 마가·우가·저가·구가 등에 의한 귀족회의체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구체적인 실무 행정은 왕과 제가 밑에 동시에 속해 있는 대사나 사자 등에 의해 처리되는 체제였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왕성을 중심으로 사방의 각 지역에서 족장 출신의 제가들이 자치적으로 휘하 읍락의 민들을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여전히 왕권에 의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지》에 표현된 시기의 부여사회가 연맹체적 단계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2) 지방통치조직

부여는 2천 리에 걸치는 방대한 영토를 동·서·남·북의 4개 지역으로 나누고 이 지역들을 ‘가’들이 관할하였으며, 중앙은 국왕이 직접 통치하였다.

부여에서는 전국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 나라를 5개 지역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삼국지》의 기록에 의하면 부여의 지방에는 ‘四出道’가 있었다. 사출도라는 말은 단순히 지방을 네 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했다는 의미보다는, 고구려의 五那部처럼 수도를 중심으로 대체로 동·서·남·북의 방위에 따라 사방을 나눈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道는 교통로 또는 그 교통로상에 위치하는 지역을 뜻한다.<sup>19)</sup> 따라서 사출도는 왕도로부터 사방에 통하는 길로서 고대국가의 지방지배의 기본이 되는 도로와 그 주변 읍락을 의미하는 말이며<sup>20)</sup> 완비된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출도는 諸加에 의해 관할되었다. 제가는 중앙 관계인 마가·우

18) 林起煥, 《高句麗 執權體制 成立過程의 研究》(慶熙大 博士學位論文, 1995), 74~75쪽.

19) 武田幸男, 〈牟婁婁一族と高句麗王權〉(《朝鮮學報》99·100, 1981), 160쪽.

20) 金哲堧, 앞의 책(1976), 63쪽.

가·구가·저가로만 한정하여 보는 견해<sup>21)</sup>가 있으나, 여기서의 제가는 이를 포함한 부족장 전체를 의미하는 범칭으로 생각된다. 이들 제가들은 당시에는 ‘鴨盧’라고 불렸던 것 같다. <광개토왕릉비>에는 고구려가 부여를 쳤다는 기사 뒤에 광개토왕을 따라서 고구려로 간 자들로 ‘味仇婁鴨盧’, ‘穉社婁鴨盧’, ‘肅斯舍鴨盧’, ‘卑斯麻鴨盧’가 나온다. 여기서 미구루·비사마 등 압로 앞에 붙은 명칭은 부여에 있던 특정 지역집단이나 부족의 거주지일 것이다. 따라서 지명 뒤에 표기된 압로는 ‘부족집단’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나 또는 이른바 사출도를 관할하는 ‘가’나 ‘干’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능비문에서는 부여성과 압로를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 실체가 다른 것으로서 부여의 수도를 부여성이라 불렀고,<sup>22)</sup> 압로는 일정지역의 가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3)</sup> 이 집단들은 국가가 고구려의 지배를 받게 되자 독자적으로 지역민을 이끌고 고구려에 투항하였다. 이는 부여사회의 지방세력이 중앙에 대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중앙 부족은 지방세력을 인정하고 이와 연맹하여 국가체제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5개 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집단 밑에는 邑落들이 있었다. 각 지방의 읍락들은 城柵으로 둘러 쌓여 있었는데 그 성책이 아주 높고 견고하기 때문에 고대 중국의 역사가들은 그것을 감옥과 같다고 하였다.<sup>24)</sup> 이러한 읍락의 구체적인 유적이 최근 길림시 교외의 蛟河縣 池水鄉 新街古城址와 松江村 福來東 고성지에서 발견되었다.<sup>25)</sup> 신가·복래동 두 고성은 평지에서 높이 솟아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에서 홍갈색의 굽접시·시루 등이 많이 나왔고, 성의 평면은 圓角方形 즉 원형에 가깝다.<sup>26)</sup> 이러한 사실은 《삼국지》부

21) 李丙燾, 앞의 글, 212쪽.

22) <광개토왕릉비>에서는 新羅의 수도를 新羅城이라 한 것으로 보아 夫餘의 수도도 扶餘城이라 불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23) 鴨盧는 東扶餘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貴族과 같은 존재를 나타내는 ‘加’나 ‘干’과 같은 의미를 지닌 稱號로 보기도 하고(박시형, 《광개토왕릉비》, 1966, 207쪽), 혹은 이동가능한 聚落으로 보기도 한다(武田幸男,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65쪽). 혹은 城 또는 官名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나(千寬宇, 〈廣開土王陵碑再論〉,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79) 압로 앞에 지역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諸加집단이나 귀족의 칭호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같다.

24)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25) 董學增, 〈吉林蛟河縣新街·福來東古城考〉(《博物館研究》2期, 1989), 69~72쪽.

여조의 “(부여는) 먹고 마시는데 모두 俎豆를 사용하고 성책은 모두 둥근데 마치 牢獄과 같다”는 기사와 부합한다. 또한 西漢~兩晉시대에 제2송화강유역은 부여의 영역으로 현재의 교하현 지수향과 송강촌은 부여국의 세력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곳이다. 그리고 최근 동단산 南城子를 부여의 왕성으로 보는 학계의 통설을 따른다면,<sup>27)</sup> 신가·복래동 두 성지는 부여의 읍락유적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가고성은 주위 둘레가 200m(약 184m) 정도로 작은 범위 안에 읍락 지배를 위한 건물들이 있어 주로 각 읍락의 대표나 호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두 고성은 모두 蛟河의 서안에 있으며 남북으로 서로 9km 떨어져 있다. 두 성이 떨어져 있는 거리로 보아 당시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점은 부여 읍락의 존재양태와 관련하여 좀더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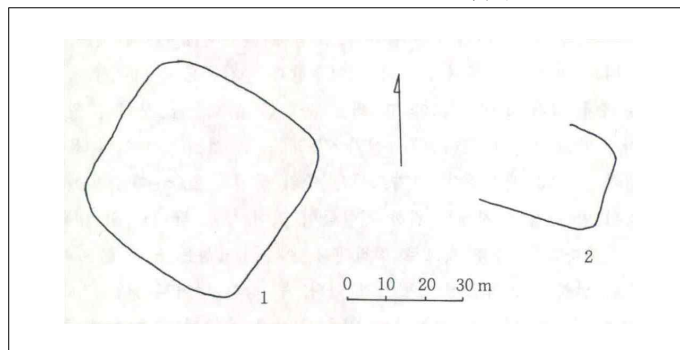
이처럼 읍락은 부여연맹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집단이었다. 그러나 이 읍락은 곧바로 중앙권력에 의해 파악되는 지방지배 단위는 아니었다. 중앙에서는 《삼국지》부여조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방위에 따라 크게 네 개의 지역으로 구분한 일종의 국읍인 사출도를 두어 제가가 담당하게 하여 지방을 총괄하였던 것이다. 《삼국지》동이전 鮮卑條에는 “(선비는) 右北平 이동으로부터 요동에 이르기까지 부여와 예맥의 20여 읍과 접하여 동부를 이루었다”<sup>28)</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읍락은 아마도 《삼국지》위서 동이전 韓조에 나오는 國邑에 해당하는 것으로, <광개토왕릉비>의 ‘味仇婁鴨盧’ 등의 ‘△△△압로’에서 ‘△△△’에 대응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부여의 중앙에서 지방을 파악하는 통치단위였다고 할 수 있다. 사출도연맹체제 내에서는 부여 왕권이 각 국읍 내에 어느 정도 통제력을 발휘하였겠지만, 아직 제가들의 자치적 성격이 온존되는 상태였으므로 각 국읍 내의 단위집단(읍락)에까지는 중앙권력이 미칠 수 없었을 것이다.

26) 두 성지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부여 都城의 한 유적인 길림시 帽兒山 漢代 목곽묘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토기의 바탕과 器形이 한대 유물의 바탕·기형과 다르기 때문에 부여 유물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馬德謙, <談談吉林龍潭山東團山一帶的漢代遺物>, 《北方文物》2期,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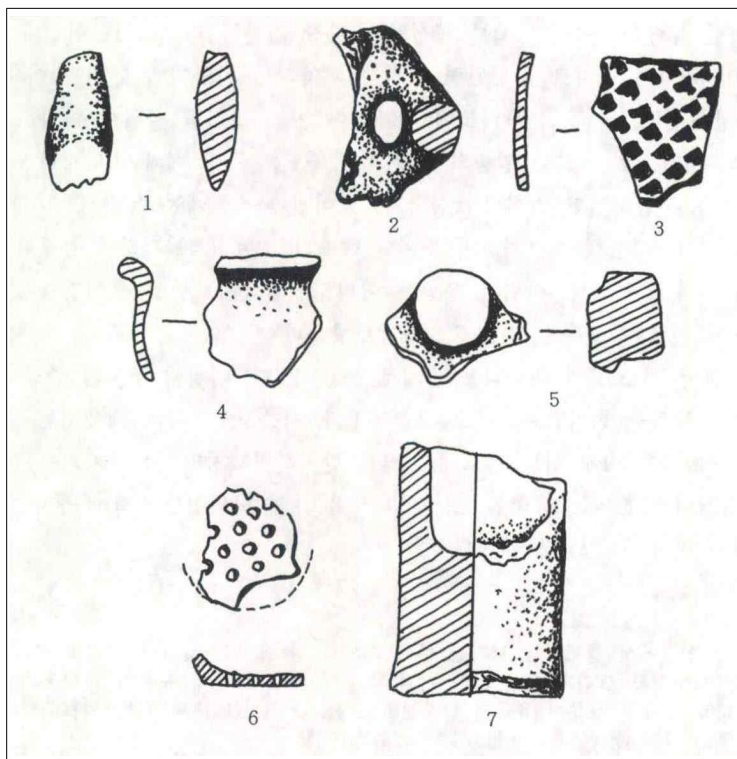
27) 武國勳, <夫餘王城新探>(《黑龍江文物叢刊》4期, 1983).

28)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鮮卑.

〈그림 8〉 新街古城址 평면도와 채집유물



1. 主城, 2. 衛城.



1. 石斧, 2. 陶器耳, 3. 方格紋陶片, 4. 陶器口緣, 5. 橋狀耳, 6. 陶甑底, 7. 陶豆柱.

이처럼 부여의 연맹체제에 의한 지방통치는 지역 단위집단인 읍락집단을 일원적으로 통제할 만큼 중앙집권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지수장 층인 諸加之 자치력을 인정하는 가운데,<sup>29)</sup> 이들을 통한 간접 지배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부여는 왕위의 부자상속 및 한과의 교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강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제가세력들을 통제·감시하는 지배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여의 지방지배 및 정복지역의 통치방식은 漢代 이래 부여에 예속되어 있던 읍루족을 통해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삼국지》동이전 읍루조에는 읍루인들이 “한 이래로 부여에 臣屬하였는데 부여가 그 租賦를 과중하게 부과하자 그에 반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당시 부여의 읍루에 대한 지배는 《삼국지》의 기록처럼 읍락별로 복속시켜 그 族長을 통하여 공납을 징수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屬民-貢納에 의한 지배체제로 보기도 하는데,<sup>30)</sup> 이 체제는 각 읍락사회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이들을 종속적으로 묶어서 동옥저부락·읍루부락 등으로 집단적으로 파악하여 공납을 받는 지배방식이다. 대체로 부여의 정복지역에 대한 통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믿어지며, 따라서 정복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下戶계층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공납지배는 매우 가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읍루가 魏의 黃初연간(220~225)에 공납징수가 가혹함에 저항하여 그 지배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실에서<sup>31)</sup> 이를 잘 알 수 있다.

## 2) 사회와 경제

### (1) 신분제도

문헌에 따를 경우 부여에는 최고 통치자로서의 왕과, 통치계급으로서 제가와 諸使가 있었는데 이들은 귀족이었다. 피통치계급 중 평민으로서는 豪民과 하호가 있었으며, 노예 계급으로서 奴婢가 있었다. 이러한 신분의 분화된 모

29) 《後漢書》권 85, 列傳 75, 東夷 夫餘國.

30) 林起煥, 앞의 책, 138쪽.

31)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挹婁.

습은 부여의 무덤들에서 나오는 화려한 부장품들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근년에 길림시 帽兒山·學古東山の 한-부여시기 토광목곽무덤과, 西荒山·梨樹地西山 豎穴岩石무덤에서는 물동이(罐)·항아리(壺)·굽접시(豆) 등의 토기와 工具와 車馬具 등의 銅器, 무기·공구 등의 鐵器, 귀걸이·牌飾 등의 金銀器, 瑪瑙珠·玉器 등의 장식품, 絹·帛 등의 絲織品 등 화려한 부장품이 나와 계급분화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표 2〉 참조).

〈표 2〉 한-부여시기의 고분과 출토유물<sup>32)</sup>

명 칭	고분수	발굴조사 고 분 수	무 덤 구 조	출 토 유 물
西荒山 岩石墓	7기	7기(79년)	장방형 수혈암 석묘(多人, 多 次, 火葬)	마제식기, 토기(20점 : 夾砂褐陶, 素面 手製, 杯·鉢·罐 등), 청동기(32점 : 劍·刀·鏃·鏡·扣 등), 철기(12점 : 鏃·鏃·刀 등)
梨樹地 西山墓	1기	1기(87년)	장방형 수혈암 석묘(火葬)	식기(6점), 토기(6점 : 협사갈도, 수제, 鉢·壺·罐 등)
帽兒山 墓群	4,000 여 기	3기(80년) 3기(85년) 188기(89 ~93년)	토광묘 토광목관묘 토광목곽묘 토광화장묘 토광적석묘 토광석광묘	玉器·石器(瑪瑙珠 등 800여 점), 銅器 (鉢·鑊·轄·泡飾 등 400여 점, 工具 와 車馬具), 철기(刀·劍·鏃·斧·鏃 등 무기·공구 100여 점), 토기(罐·壺 등 50여 점), 금은기(耳環·牌飾·管· 扣 등 장식품 40여 점), 絹·帛 등 絲 織品, 漢代유물(月光鏡·漆耳杯·貨泉)
學古墓	1기	1기(83년)	장방형 토광묘 (남녀합장)	생산공구(銅錘, 鐵鏟), 兵器(鐵刀 4점, 鐵矛 1점), 일상생활용품(銅斧 2점, 銅 帶鉤 2점, 銅扣 10점, 青銅昭明鏡 1점), 장식품(금반지 1점, 마노주 2점)

32) 이 표를 작성하는 데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였다.

吉林省文物工作隊, 〈吉林樺甸西荒山青銅短劍墓〉(《東北考古與歷史》1).

張永平, 〈磐石縣西山豎穴岩石墓〉(《博物館研究》93-2).

吉林市博物館, 〈吉林市帽兒山漢代木槨墓〉(《遼海文物學刊》1988-2).

尹玉山, 〈吉林永吉學古墓清理簡報〉(《博物館研究》85-1).

또한 아직까지 부여의 무덤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sup>33)</sup> 부여의 신분 관계를 살펴보면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 유수 老河深유적이다. 노하심분묘군은 한·부여시기 고분인데 발굴된 전체 129기의 무덤 가운데 남·북·중 세 개의 구역 중에서 南區가 부장품의 질과 양에서 우수하다. 그러므로 남구의 분묘군은 노하심 일대 부족 중의 大姓에 해당하는 집단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구역 내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려한 부장품을 가진 M1과 M11(대형의 남녀 異穴合葬墓)을 중심으로 그 동측에 32개의 무덤이 부채꼴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다. 가까운 것은 남녀合葬을 하고 부장품이 많으나, 먼 것은 單身무덤이고 한 점 정도의 철기가 副葬되어 있다.<sup>34)</sup> 이는 기원전 2세기를 지나 한대에 부여의 생산경제는 이미 사유제가 확립되었고, 특히 남성이 우월한 지위를 갖는 가부장권이 확립된 일부다처제사회였음을 말해준다. 또한 무덤에 따라 부장품의 종류와 양에 차이가 나는 것은 빈부의 분화 또한 상당히 심화된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화된 신분체계 안에서 부여의 최고 신분으로는 중앙에 王이 있었고, 그 밑에 여섯 가축으로 이름을 정한 馬加·牛加·豬加·狗加·大使·大使者·使者 등 귀족이 있었다.<sup>35)</sup> 부여의 귀족인 諸加층은 수천·수백 家로 이루어진 사출도를 통솔하는 독자적 세력기반을 갖고 있는 존재였다. 제가층은 “큰 것이 수천 가 작은 것이 수백 가”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고구려처럼 大加·小加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것은 국가의 중심세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 제가층이 갖는 세력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36)</sup> 이들은 중앙에 있으면서 사출도로 포괄되는 읍락공동체를 다스리는 관리로서의 역할과, 지방에 있는 수천 가 또는 수백 가의 하호 및 노예를 소유하였으며, 적이 있을 때에는 그 단위로 출동하여 나가는 군사령관의 역할도 하였다. 그 때 하호들은 양식을 운

33) 老河深유적을 鮮卑의 것으로 보더라도 매장방법이나 토기 등 출토유물이 부여와 동일하며, 유목적인 성향이 강했던 부여의 경우와 어느 정도 유사한 신분분화를 추론할 수도 있으므로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1987).

3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위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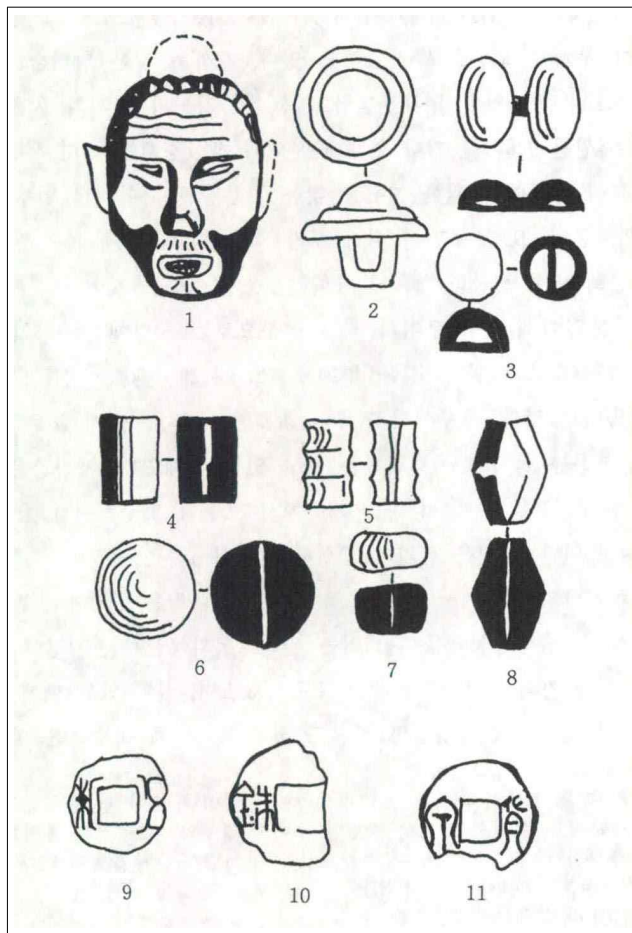
35)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36) 林起煥, 앞의 책, 160쪽.



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加’귀족은 우가가 국왕과 혈연적 관계에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것 등을 통해서 볼 때 6명에 한하지 않고 많은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술했듯이 가계층 내에서 외교·군사적인 일에는 대사·사자에 해당하는 관직을 가진 이들이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帽兒山 출토·채집 한-부여유물



1. 銅面具, 2. 靑銅扣, 3. 卵形鍍金具, 4~8. 瑪瑙珠, 9~10. 五銖錢, 11. 貨泉.

한편 제가의 통솔을 받는 읍락은 豪民・下戸 등 두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계급분화가 진행된 결과 평민 중의 부유해진 상층은 호민이 되었고 일반민은 하호가 되었다. 부여사회의 여러 계층 모습을 보여주는 《삼국지》 부여조의 기록에는 “읍락에는 호민이 있고, 하호라 이름하는 것은 모두 奴僕이 되었다”<sup>37)</sup>라고 하였다. 종래 이 기록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있었다. 호민은 촌락에 거주하는 유력한 민을 의미하는 말로, 이를 족장<sup>38)</sup>이나 渠帥<sup>39)</sup> 또는 많은 사유재산을 가진 민<sup>40)</sup> 등으로 각각 달리 파악하여 왔다. 다만 대체로 신분상으로는 민에 속하면서 하호를 지배한 것으로 보는 점에서는 일치되고 있다. 그런데 《후한서》동이전 부여조에 “읍락은 모두 제가에 主屬되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읍락의 지배자는 호민이 아닌 ‘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른바 호민과 가의 관계가 또다시 문제가 되는데 3세기 부여의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가는 재지의 호민이 성장하여 중앙 귀족계급화한 계층으로서 자신의 세력기반이 있는 읍락의 호민을 매개로 하여 하호(민)를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서》나 《삼국지》 등 당대 중국 사서의 호민의 용례를 보면 하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유한 상층민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sup>41)</sup> 즉 호민이 결코 민의 지위에서 벗어난 정치적・신분적 계층개념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호민은 관인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재지사회의 유력세력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삼국지》부여조의 호민도 고구려조에 나오는 ‘佃作을 하지 않고 坐食하는 자’와 같은 계층으로서 경제적 부를 축적한 계층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sup>42)</sup> 부여의 호민은 동옥저

37) 汲古閣本과 新校本에는 ‘名下戸’로 되어 있으나, 宋本・殿本에는 ‘民下戸’로 되어 있어 종래부터 부여의 읍락공동체의 구성과 그 계층관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왔다. 그 견해는 크게 민과 하호를 별개의 계층으로 이해하여 호민・민・하호의 3계층으로 분류하는 경우(金三守, 〈古代 夫餘의 社會經濟構成과 土地私有의 存在形態〉, 《淑明女大論文集》 7, 1968)와 민과 하호를 동일한 계층으로 이해하여 호민・민(=하호)의 두 계층으로 분류하는 경우로 대별되는데 후자의 견해가 보다 유력시되고 있다.

38) 金哲垸, 앞의 책(1976), 50~51쪽.

39) 武田幸男, 〈魏志東夷傳にみえる下戸問題〉(《朝鮮史研究會論文集》 3, 1967).

40) 金三守, 앞의 글.

41) 文昌魯, 〈三國時代 初期의 豪民〉(《歷史學報》 125, 1990), 37~45쪽.

나 예의 읍락 거수층과 동일한 계층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거수가 읍락의 정치적 지배자라면 호민은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자라는 성격이 보다 강하였다는 것이다.<sup>43)</sup> 이처럼 호민층은 바로 일정한 사회발전 단계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존재로 볼 수 있다.

호민층에는 족장들 외에도 占卜을 행하고 祭天에 참여하며 종교적 기능을 행하던 사민과 같은 이들과, 철을 다루는 冶匠 같은 기술자 및 그 밖의 부유하고 유력한 민호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토지와 노동력을 확대해가면서 토지로부터 유리되는 유랑민 등을 용작민이나 노비 등으로 편입시켜 읍락의 민을 지배한 것으로 이해된다.

호민 아래에는 하호와 불리는 촌락의 일반민들이 있었다. 이들은 평시에는 대개 생산을 담당하여 생산물을 지배계급에게 공납하였지만, 전시에는 군량을 부담하는 임무를 맡았고 직접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석된다.<sup>44)</sup> 하호는 가난하여 병장기를 갖추 수 없었기 때문에 諸加들이 스스로 싸울 때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군량만을 보급하였다.<sup>45)</sup> 2~3세기 이후 고구려의 피지배층인 하호가 읍락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민이라는 개념에 가까운 존재로 변화되었듯이,<sup>46)</sup> 부여의 하호도 독립적 가정을 가지고 있던 민계층에서 최하층을 이루는 빈민 즉 경제적으로 가난한 백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삼국지》의 ‘佃作을 하지 않고 좌식을 하는 자’라는 호민이 하호와 서로 상대적으로 대응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삼국지》 등에 하호를 마치 노예인 양 기술한 것은 중국인들에게 하호가 계급적 처지로 보아 노예와 별로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부여사회에서 하호는 노예적 처지에 놓인 예농층을 가리키는 용어였

42) 文昌魯, 위의 글, 45~56쪽.

43) 余昊奎, 《1~4세기 고구려 政治體制 연구》(서울대 博士學位論文, 1997), 126쪽.

44) 余昊奎, 위의 책, 106쪽.

45) 종래에는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조에 나오는 “家家自有鎧仗”에 대해 일반민이 집집마다 무기를 보유하고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왔으나 최근에는 이를 諸加·豪民들만이 전투를 수행한 戰士집단이고, 下戶는 전투를 수행할 권리도 의무도 갖지 못한 보급병으로 보고 있다(余昊奎, 위의 책, 106쪽).

46) 林起煥, 앞의 책, 165쪽.

다. 한편 하호가 호민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하호가 노예와 같이 복종해야 할 만큼 호민의 세력이 절대적이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sup>47)</sup> 이는 고구려에 대한 기사로 《翰苑》에 인용된 《魏略》에 “하호의 給賦는 노예와 같 이한다”라 한 것도 “모두 노복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표현일 것이다.

종래 하호에 대해서는 고전적 노예<sup>48)</sup> 또는 가내노예=동방적 노예,<sup>49)</sup> 나 아가서 農奴<sup>50)</sup> 혹은 양인 신분의 농민층<sup>51)</sup>으로 보는 등 다양한 견해가 제 시되었다. 그러나 《삼국지》 동이전의 용례로 보아 이들을 노예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호민의 지배를 받는 양인신분의 일반 농민층이나 邑落員을 가리킨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52)</sup> 물론 양인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급농민과 용작농민으로 구별하여 파악할 여지가 있고, 또한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하호들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들 하호 와 관련하여 국가의 촌락지배라든지 촌락 내부의 사회관계 등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일반민 즉 하호 아래에는 노예가 존재하였다. 노예소유자들은 수많은 노 예들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삼국지》 동이전 부여조에 의하면 “사람을 죽 여 순장했는데 많을 경우 백수십 인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순장된 사람은 대개 노예로 볼 수 있다.<sup>53)</sup> 순장된 노예에는 전쟁포로 노예가 많았을 것이 나 그 외에 형벌노예와 부채노예도 있었을 것이다. 부여의 법률에 따르면 살 인자는 죽이고 그 가족을 노예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절도를 할 경우 12 배로 배상하게 하였는데 변상이 여의치 않으면 노예로 삼았을 것이다. “형벌 을 줌에 엄하고 급하였으며,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몰수하여 노비로 삼는다”<sup>54)</sup>라고 한 것에서 부여족은 정복을 통해 얻은 노예와 함께

47) 金哲垸, 〈韓國古代社會의 性格과 羅末麗初의 轉換期〉(앞의 책), 274~275쪽.

48)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東京; 改造社, 1933).

49) 金三守, 앞의 글, 356~358쪽.

50) 金柄夏, 〈韓國의 奴隸制社會의 問題〉(《韓國史時代區分論》, 韓國經濟史學會, 1970).

51) 洪承基, 〈1~3세기의 民의 存在形態에 對한 一考察〉(《歷史學報》 63, 1974).

武田幸男, 앞의 글(1967).

52) 洪承基, 위의 글.

武田幸男, 위의 글.

53) 權五榮, 〈고대 영남지방의 殉葬〉(《韓國古代史論叢》 4, 1992), 14~16쪽.

54)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형벌노예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一責十二法の 존재를 통해 부여 사회에는 부채노예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족장층과 호민들은 상당수의 노예를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여에는 8만 호의 인구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호가 노예적 처지에서 착취당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부여사회에서 노예의 수는 사실상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는 殉葬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순장된 사람들은 노예이며, 순장은 족장층과 호민들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믿어진다.

결국 부여의 계층구성은 국왕과 상층의 귀족계급으로서 제가·사자 등 관료계층이 있었고, 그 밑에 일반민으로서 족장층인 호민층과 평민들인 하호, 그리고 최하층의 노예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것을 당시의 생산관계와 연결시켜 본다면 특권계급으로서의 노예소유자층인 귀족군과 생산계급으로서의 하호, 그리고 노예군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더구나 하호군은 당시의 노예군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또한 법률화되어 있었다.

## (2) 법률과 형벌

《삼국지》위서 동이전 부여조를 보면 부여에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법률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55)</sup>

- 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沒入하여 노비로 삼는다.
- ② 도둑질한 자는 그 물건의 12배를 배상[一責十二法]한다.
- ③ 간음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④ 부녀자의 간음과 투기에 대해서는 더욱 증오시하여 모두 이를 극형에 처하여 그 시체를 서늘 남쪽 산 위에 버려 썩게 한다. 다만 그 여자의 집에서 시체를 가져 가려고 할 때에는 牛馬를 바쳐야 한다.

性情이 온후하여 평화적이었다고 하는 부여에서 이처럼 형벌이 가혹하였던 것은 그들 공동체의 조직원리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sup>56)</sup> 이것은 마치 사유재산제도의 형성 초기에 盜律이 엄한 것과 같은 이치

55)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56) 李基白, 〈夫餘의 妬忌罪〉(《史學志》4, 檀國大, 1970), 227쪽.

로, 피지배계급의 이익에 배치되는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경우에 지배계급이 창출하는 보편적 사상이었다.<sup>57)</sup> 또한 “하나를 흠치면 12배로 갚아야 한다”는 조항은 《위서》 형벌지에 “官物을 흠친 자는 이를 5배로 갚아야 하고 私物은 10배로 갚아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법률개념으로, 유목경제시대에 그 한계가 명백하지 못하였던 재산관념이 반영된 법속의 잔재로 생각된다.<sup>58)</sup>

살인과 상해에 대한 처벌은 바로 공동체의 구성원인 각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을 존중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부여에서는 가족제도에 관한 규정이 중시되었음이 눈에 띄는데, 妬忌罪에 대한 가혹한 형벌은 一夫多妻制 내지는 蓄妾制의 풍습이 상류층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결과일 것이다. 투기죄에 대한 처벌은 《삼국지》의 기록 외에 그 이유를 전하는 자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삼국지》 동이전 왜인조에는 “그 풍속에 나라의大人은 모두 4·5명의 부인을 둔다. 하호는 혹 2·3명의 부인을 두는데 부인은 음란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당시의 동방사회는 가부장적인 일부다처제의 가족형태가 보편적이었음을 전해주고 있다.

남녀 간의 간음에 대한 처벌이 쌍벌주의가 아니라 여자만 처벌되었다는 것은 부여가 가부장권이 확립된 일부다처제사회였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한 명의 남편을 중심으로 다수의 아내가 가정생활을 꾸리고 사는 생활에서는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규범으로서 투기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게 마련이다. 부여에서는 일부다처제 아래에서 가부장권을 확립하고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기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였다. 그것은 바로 매장권을 박탈하는 것으로<sup>59)</sup> 죽은 자의 영혼의 부활까지 막는 조치를 내리고, 처가에서 남자에게 당시의 재산인 소나 말을 갖다 바쳐야만 여자의 시신에 대한 매장이 가능하였을 정도로 그 처벌은 가혹하였다. 이러한 투기죄의 규정은 현재의

57) 孫晉泰, 《朝鮮民族史概論》(乙酉文化社, 1948), 58쪽.

58) 부여족의 생활은 어느 면에서 북방 유목민족이 지녔던 잔재가 남아 있다. 이는 부여인이 기본적으로 북방 유목민과 교류한 결과지만, 한편으로 그들 자신이 북방 유목민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59) 고대인들은 일단 목숨이 다한 인간이 땅에 묻히게 되면 곡식의 낱알처럼 그 영혼도 부활하게 된다는 地母神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重罪인에 대해서는 그들 영혼의 부활까지 박탈할 목적으로 철저히 봉쇄하였다. 부여의 투기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부다처제사회에도 존재하지만 고대사회로 올라가면 그 처벌 규정이 보다 가혹하여 사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sup>60)</sup>

부여에는 이러한 법의 제재대상이 되었던 죄인들을 감금하기 위한 감옥이 존재하였다. 감옥은 수도뿐만 아니라 전국 도처에 있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는 사형수 이외의 모든 법률 위반자들이 감금되었을 것이다. 특히 중대한 범죄자들은 국중대회인 迎鼓 행사시에 제가들의 합의에 따라 처형되었다. 한편 부여에서는 占卜의 습속이 유행하였다. 부여족은 “소를 죽여서 발굽으로서 그 길흉을 점쳤는데, 소의 발굽이 갈라지면凶한 것으로 여겼고, 합쳐지면吉한 징조로 여겼다”<sup>61)</sup>고 한다. 부여에서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러한 천신제를 지내고, 그 길흉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소를 죽여서 굶이 붙고 벌어진 것으로 길흉을 판별했다고 한다. 이같은 점복은 아마도 중국 殷의 甲骨占法과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생각되며 흉노사회에서는 물론 고구려·삼한 등 북방 및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보편적인 관습으로 행해졌던 것이다.<sup>62)</sup>

### (3) 경제생활

부여의 족장층으로 여겨지는 大人<sup>63)</sup>들은 외국에 나갈 때에 수를 놓은 비단옷에 모피 갓을 쓰고 이에 금으로 장식을 하여 호사로움을 과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족장층의 부는 상당하였고 그들에 의한 부의 집중이 진전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여인들은 백금보문화나 서단산문화 단계에서는 주로 석기나 목기를 이용하여 농경을 하였다. 그러나 전국시대 이후에는 철기문화의 영향으로 쇠붙이로 만든 호미·가래·쟁기, 그리고 소와 말의 畜力 등에 의해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여사회에서 이미 深耕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견

60) 이러한 규정은 부여에 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구려의 中川王(248~270)의 후궁 貫那夫人이 王后 椽氏를 국왕에게 참소하였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투기죄에 대한 처벌의 산 예에 속한다(李基白, 앞의 글, 3~10쪽).

61)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62) 孫晉泰, 앞의 책, 62쪽.

63) 여기서 大人들은 아마도 大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해도 있으나<sup>64)</sup> 그것은 牛耕이 가능한 시기에나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생각된다.

부여의 산업과 생산물에 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으나 《삼국지》에 “토지는 오곡에 적합하고 五果는 나지 않는다”라고 한 사실을 통하여 부여의 기본 생업이 농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8만 호를 거느린 부여는 고대 초기국가 가운데서 토질이 가장 비옥하고 평탄한 지역을 차지하여 농업이 발달하였다. 부여 선주민의 문화인 서단산문화 晩期유적들에서는 돌도끼와 반달칼·돌호미 등이 출토되고, 형태가 다양한 많은 토기가 점차 규격화되고 있는 등의 사실로 보아 당시 주민들이 장기적인 정착생활과 농업을 위주로 한 경제생활을 영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단산문화 마지막 단계인 楊屯 大海盟유적에서는 갈돌 등 農具의 수량이 더욱 많아지고 형태도 다양해지며, 시루·좁쌀 등이 출토되고 있다.<sup>65)</sup> 이후 한-부여시기의 여러 고분 및 유지에서는 철제 삽과 낫 및 다양한 토기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철기시대 이후에는 금속제 농기구의 출현과 함께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부여의 농업경영은 대체로 豪民들이 토지를 사유하고 下戸를 부려 농경에 종사하게 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여전히 옛 농업공동체의 생산형태도 遺制로서 남아 있었음이 명확히 보인다. “옛날 부여의 습속에 가뭄이 들어 농사가 흉년이 들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리고, 혹 왕을 바꾸거나 죽이기도 하였다”<sup>66)</sup>라는 기록은 곡식농사가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생산경제의 계획자로서 왕에게 책임을 지우는 농업공동체 단계의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여에서는 농업과 함께 목축업도 성행하였다. 주요한 가축으로는 말·소·돼지·개 등이 있었다. 특히 부여의 대평원에서 생산되는 말은 유명하여 일찍이 외국에까지 알려졌다. 《삼국지》동이전 부여조에는 “그 나라에서는 가축기르기를 잘하고 名馬와 赤玉·담비·아름다운 구슬이 난다. …여섯 가지 가축으로 관직이름을 정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부여에서 가축의 무리를 종류별로 전문적으로 길렀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sup>67)</sup> 목축업은 부여

64) 白南雲, 앞의 책, 135쪽.

65) 劉景文, 〈西團山文化的農牧業發展探索〉(《北方文物》2期, 1991), 13~17쪽.

66)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67) 부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한 가축은 무덤의 부장품으로 보아 돼지였음을



족에게 가장 인연이 깊은 산업으로 농업과 서로 병존하였으며 역사적으로는 어느 의미에서 농업보다 더 선행된 중요한 생산부문이었다. 부여는 훌륭한 말을 산출하였으므로 농경민이면서도 기마풍습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보병과 함께 상당한 수의 기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소속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부여 전성기의 영역 내에 있던 西豊縣 西岔溝<sup>68)</sup>·東遼縣 石驛彩嵐유적<sup>69)</sup>이나 榆樹縣 老河深<sup>70)</sup> 목곽묘유적 등에서는 유목민들이 주로 사용한 철제 무기들과 마구, 그리고 銅製 飛馬牌飾이나 雙耳銅釜(鍔)가 나오고 있다. 또 學古東山이나 帽兒山 등 한-부여시기의 고분에서도 철제 무기와 마구·농기구 등이 동부 등과 함께 나오고 있다. 쌍이동부만을 놓고 본다면 이는 몽고지역<sup>71)</sup>이나 集安의 고구려유적에서도 적지 않게 출토되는 유목민계통의 유물이다. 또한 부여는 선비와 인접하고 있었으므로 선비의 문물제도를 흡수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있었다.

《삼국지》동이전 부여조에는 3세기 중반 부여의 군사동원체계를 전하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부여는 지배 귀족인 諸加들이 스스로 무장을 하여 전투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무장한 귀족들이 직접 말을 타고 금속제 병장기를 들고 기마전을 수행할 경우, 그 군사력은 대단히 높았을 것이다. 이처럼 부여족은 목축업의 발달에 따라 우수한 전투력을 지닐 수 있었다. 중국 사가들이 《삼국지》부여조에서 “부여는 부유하고 선세 이래 타국에게 피해를 본 일이 없다”라고 한 것은 부여의 경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부여에서는 목축 외에 상업과 교통도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1세기 초에 이미 멀리 후한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은 이래 역대로 부여는 魏·晉의 여러 나라들과도 일정한 외교관계를 가졌는데 그 때마다 그 나라들과 대외무역이 이

---

알 수 있다. 吉林지역 서단산문화에서는 대부분의 석관묘에서 돼지뼈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길림 土城子유적의 경우는 출토된 짐승뼈 중 돼지뼈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68) 田 耘, 〈西岔溝古墓群族屬問題淺析〉(《黑龍江文物叢刊》1期, 1984).

69) 劉升雁, 〈東遼縣石驛公社古代墓群出土文物〉(《博物館研究》3期, 1983).

7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앞의 책.

71) 潘 玲, 〈黑龍江友誼縣出土的鄂爾多斯式青銅釜初探〉(《北方文物》3期, 1994), 127~128쪽.

루어졌다. 특히 후한의 광무제가 부여의 조공에 후하게 보답했다<sup>72)</sup>든가 “후한 永寧 원년 부여 왕세자 尉仇台가 후한 낙양에 와서 공물을 바치자, 천자는 위구태에게 인수와 금색채단을 내렸다”<sup>73)</sup>는 기록 등은 단순히 封貢과 보답의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歲幣의 통교, 즉 상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옛 중국인들이 부여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모피류들과 좋은 말 및 구슬류 같은 특산물들을 알 수 있었던 것도 부여의 대외무역이 성행하였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여의 사회경제는 주로 기본 생산대중인 노예와 하호들에 대한 착취와 정복민인 읍루족에 대한 가혹한 수탈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부여사회에서 노예의 존재를 말해주는 순장이 행해졌다는 사실은 3세기 전반 부여사회의 일면에서는 공동체적 유대가 잔존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왕권이 점차 강화되어 가는 추세와 서로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순장은 일단 사유재산제의 발생과 함께 싹튼 노예제도에 의해 일정한 무리의 비자유인들이 하나의 생산수단으로서 부유층에게 소유되고, 그 결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유관계에 의거하여 그 소유자가 비자유인의 생살 여탈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장제는 노예제사회에서 성행할 수는 있으나 순장제의 성행이 곧 노예제사회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sup>74)</sup> 오히려 순장은 순장하기보다는 그 노예를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편이 富의 생산수단으로서 더욱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노예제도의 미발달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sup>75)</sup>

부여가 가장 강성했던 3세기 전반에 부여사회는 일면에서는 공동체적 유체가 잔존해 있었고, 다른 일면에서는 사회분화가 진전되어 가고 있었다. 그것은 정치체제에서는 연맹체적인 성격이 강인하게 존재하는 가운데서 왕권이 점차 강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宋鎬叢〉

72) 《後漢書》 권 85, 列傳 75, 東夷 夫餘國.

73) 위와 같음.

74) 노태돈, 〈한국인의 형성과 국가의 기원〉(《한국사특강》, 서울大 出版部, 1990), 44쪽.

75) 白南雲, 앞의 책, 132~143쪽.

## 4. 부여의 문화

## 1) 신앙과 제의

농경생활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은 크게 안정되었다. 그들은 농경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의 질서를 발견하게 되었고, 나아가 그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자신들의 생활을 더욱 안정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동체적인 질서 속에서 집단적인 행동이 가능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적 祭儀로 나타났다.<sup>1)</sup>

부여에서는 혈연의 유대가 사회구조의 중요한 요소였다. 이러한 혈연을 통한 공동의식의 강조는 거족적인 부족공동체사를 통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부여인은 “殷正月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국중대회는 연일 계속되며, 음식을 먹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이를 迎鼓라고 했다. 군대를 동원할 일이 있으면 또한 하늘에 제사했다”<sup>2)</sup>는 것에서 보듯이 1년에 1회 12월에 영고라는 국중대회를 거행하였다. 영고는 국중대회로서 고구려의 東盟祭(10월), 동예사회의 舞天祭(10월), 마한의 10월제와 꼭 같은 성격의 제례로 씨족사회의 유습을 계승한 일종의 수확감사제였다. 그러나 부여가 고구려나 동예와 달리 추수감사제를 본격적인 사냥철이 시작되는 시기인 은정월(12월)에 거행하였던 것은 공동수렵을 행하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3)</sup> 이 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하늘은 신령이 거처하는 곳으로 만물일체를 주재하여 복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영고라는 말은 수확감사제에 해당하는 부여말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sup>4)</sup> 맞이굿(迎神祭)

1)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古代篇(一潮閣, 1982), 117쪽.

2)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3) 부여에서 영고가 12월에 거행된 것은 12월경의 짐승들이 가장 肥味하고 대개 동굴에 침거하며, 눈 위의 발자국에 의하여 그 소재를 용이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때를 타서 씨족 전원이 공동으로 수렵을 하여 그것으로 대대적인 제천의식을 행하였던 것이니, 고대 한민족의 소위 巡狩란 것도 이러한 제례의 발전형태였다고 한다(孫晉泰, 《朝鮮民族史概論》, 乙酉文化社, 1947, 61쪽).

4) 李丙燾, 〈夫餘考〉(《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5), 223쪽.

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5)</sup> 특히 북을 활과 화살처럼 하늘과 통할 수 있는 신비력을 지녔다고 믿어 왔던 예맥족사회의 풍속으로 미루어 보아, 부여의 영고는 이를 반영한 종교적 의례였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북은 가무로써 신을 즐겁게 하는 사면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祭具이며, 국중대회에서 공동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공동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흉노족이 5월에 龍城에서 대회를 열어 그 조상과 천지귀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선비도 季春의 饒樂水에서 大會를 가졌다는 것을 보면<sup>6)</sup> 영고와 같은 제천행사는 북방 유목사회의 공통적인 습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흉노족은 각 分地 내의 단위집단을 누층적으로 편제하는 형태로 국가체제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부족적 차원의 제천행사를 국가적 제전으로 승격시켜 흉노 국가 전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한편 각 左右王長과 분지 내부의 단위집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천행사시에 諸長會議를 개최하여 국가 중대사를 의결하였던 것이다.<sup>7)</sup> 사출도로서 지방을 일정한 단위로 나누어 통제하던 체제를 가지고 있던 부여의 경우도 국중대회의 모습이 이와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축제 때에는 노예나 외래민을 제외한 전 부여의 읍락민들이 참여하여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면서 서로간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부여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노래부르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삼국지》에서는 노인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종일토록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였다.<sup>8)</sup> 136년에 부여왕이 친히 낙양에 가서 조공을 바쳤는데 漢의 順帝는 일행을 성대하게 대접하고, 특히 그들을 위해 북과 나발을 불고 角抵戲를 하여 환송하였다.<sup>9)</sup> 이것 또한 부여

5) 김택규, 〈迎鼓考〉(《國語國文學研究》 2, 1958).

梁在淵, 〈魏志東夷傳에 나타난 祭天儀式과 歌舞〉(《魏志東夷傳의 諸問題》, 1979).

李亨求, 《韓國 古代文化의 起源》(까치, 1991), 107~113쪽.

6) 《史記》 권 110, 列傳 50, 匈奴.

7) 林 幹, 〈匈奴社會制度初探〉(內蒙古自治區 第一會歷史科學討論會 發表文, 1962 ; 《匈奴史論文選集》, 1983).

護雅夫, 〈北アジア・古代遊牧國家の構造〉(《世界歴史》 6, 岩波書店, 1971).

8)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9) 《後漢書》 권 85, 列傳 75, 東夷 夫餘國.

인이 음악과 가무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을 것이다.

부여에서는 국중대회 때 제천행사와 동시에 刑獄을 판결하고 죄수를 석방하였다.<sup>10)</sup> 수도에서는 전국의 족장에 해당하는 諸加들이 모여 왕을 중심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지난 한 해를 결산하며 주요문제를 토의하여 국가의 통합력을 강화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지》 부여조의 기록에 따르면 부여의 경우 3세기 중엽 왕권이 강화되기 이전의 어느 시기에는 그 해의 풍흉에 따라 왕을 교체하거나 살해하였다고 한다.<sup>11)</sup> 한 해의 풍흉이 결정되는 시기에 왕을 살해하거나 교체하였다는 것은 왕의 치폐가 제천행사시의 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천행사 때의 회의체의 이러한 기능은 왕권이 확립되고 국가체제가 성립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대로 지속되었다. 3세기의 사실을 반영하는 《삼국지》에 “형옥을 처단한다”고 한 내용은 당시 부여에서는 제천행사시에 제가회의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국중대회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는 바, 이 대회는 ‘加’라고 칭하는 고급 귀족관료들의 평의회였다고 볼 수 있다. 이 회의에서 국왕은 최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부여사회는 아직 전국에 걸친 지배조직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지방의 각 부족들의 자치력이 온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영고는 비단 민속적인 행사로서 뿐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영혼의 불멸을 믿고 장례를 후하게 한 것은 고대사회의 공통된 풍습이었다.<sup>12)</sup>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일반적으로 厚葬을 하였다. 부여에서는 보통 送葬을 멈추어두는 停喪기간이 5개월에 미칠 정도로 상주는 장사를 속히 지내려 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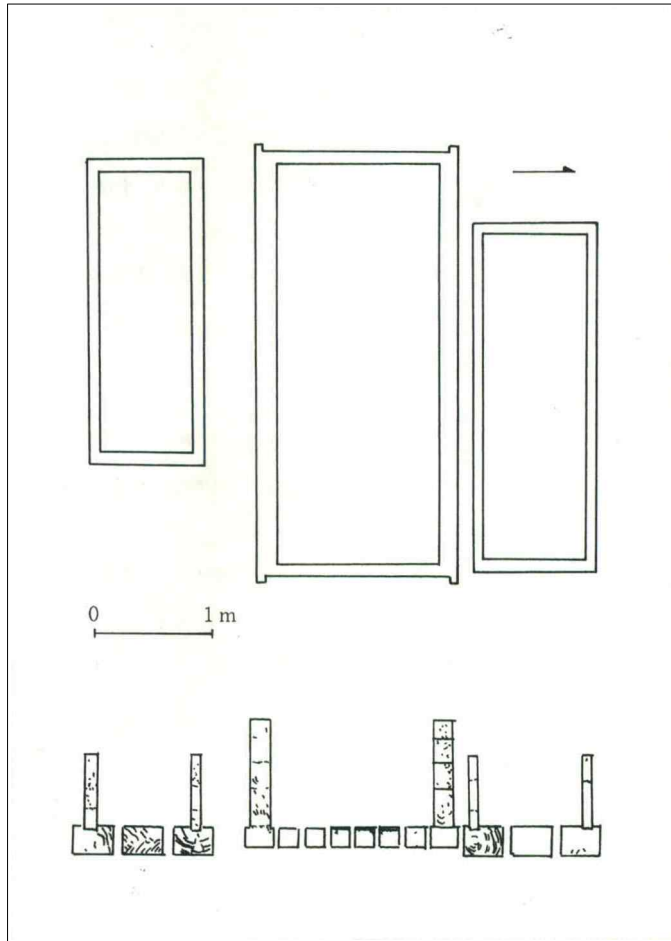
10) 한 때 ‘斷刑獄 解囚’를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준다’로 해석하였는데 최근에 ‘형옥을 판결하고 죄수를 풀어준다’로 풀이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李基白, 〈한국고대의 裁判과 祝祭〉, 《歷史學報》 154, 1997).

11)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12) 邊太燮, 〈韓國 古代의 繼世思想과 祖上崇拜信仰(上)〉(《歷史教育》 3, 1958), 55~69쪽.

〈그림 10〉

帽兒山 M1목곽무덤



고 남의 강권에 의해 행하는 것을 예절로 알았다. 그리고 여름에는 얼음을 써서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였고 또한 많은 부장을 하였다. 나아가 貴人에 대한 순장의 풍습은 한·위시대까지도 행하여져 많은 때에는 그 수가 백에 달했다고 한다.<sup>13)</sup> 장례를 치를 때에는 남녀 모두가 순백색의 의복을 입

13)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고, 특히 부인은 布面衣를 입고 패물이나 고리는 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sup>14)</sup> 등은 귀족계급에게 있어 祖先숭배사상이 극히 엄격하고 상당히 복잡하였던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특히 王葬은 玉匣을 사용했고 鏤金한 옥으로 만든 옷을 입혔다고 한다.

《삼국지》동이전 부여조에 의하면 부여인들은 죽은 이를 위해 棺은 쓰되 槨이 없는 무덤을 쓴다고 하였다. 이것은 부여에서 이른바 土壙木棺(槨)墓가 널리 유행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원전 3세기를 지나면서 송눈평원과 송요평원의 부여 중심지역에서 토광목관묘가 주된 묘제로 사용된 점에서 증명된다.

## 2) 생활 풍습

《후한서》동이열전 부여조에 의하면 부여인의 체형은 高大하고 기질이 용감하고 사나웠으며 사람을 대함에 정성스럽게 하였고 손님이 오는 것을 매우 좋아하여 잘 대접하였다고 한다. 이들 부여족은 고구려와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본래부터 동일 종족이었던 예맥으로부터 부여와 고구려가 나왔기 때문에 고구려와 부여의 ‘言語諸事’가 똑같고, 고구려를 부여의 別種이라고 한 것이다.<sup>15)</sup> 한편 《魏書》失韋傳에 “실위어는 庫莫奚·거란·두막루국과 같다”고 하였는데 부여의 후손인 두막루는 부여와 언어가 같았을텐데 두막루의 언어가 거란어 및 실위어와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근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위어는 몽고어족에 속하다고 한다.<sup>16)</sup> 그러므로 부여어·두막루어도 마땅히 몽고어족에 속해야 한다. 부여 제가의 관명 중에 ‘가’나 ‘干’은 몽고어족 계통의 官名으로서 칸(Khan, 可汗, 可寒, 汗)과 음이 가까운 점은 이를 방증해준다고 하겠다.

부여에는 부여 고유의 문자는 없었던 것 같고 한자가 새겨진 印璽를 쓰거나 공문이나 법령을 공포하는 데도 한자를 사용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외의 다른 생활방식에서도 부여는 중국 것을 많이 모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14)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15) 《後漢書》권 85, 列傳 75, 東夷 高句麗.

16) 孫進己, 《東北民族源流》(黑龍江人民出版社, 1987), 237쪽.

는 “모였을 때 揖讓하는 예의는 중국과 유사하다<sup>17)</sup>”는 기록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부여 상류층의 생활에는 중국 예속의 영향으로 음식에 俎豆를 사용하고<sup>18)</sup> 연회에 ‘拜爵洗爵’하고, ‘揖讓升降’의 예가 있다고 하였는데,<sup>19)</sup> 이것은 모두 중국과의 오랜 문화적 교섭에서 유래된 것으로 殷曆의 사용<sup>20)</sup> 역시 그러하였던 것이다. 또 장례를 치를 때 남녀 모두가 순백색의 의복을 입고, 특히 부인은 포면의를 입고 패물이나 고리는 차지 않았다고 하는 것 등은 대체로 중국과 유사한 습속이었다고 한다.<sup>21)</sup>

부여에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娶하는 娶嫂婚(levirate)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부여사회에서 취수혼은 이전 시기 혼인 풍속의 잔재나 예외적인 것으로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당대인들이 바람직한 혼인형태로 여기는 選好婚으로 널리 행하여졌다.<sup>22)</sup> 이러한 취수혼의 풍습은 유교윤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악덕으로 여기지만, 漢初 흉노에 귀화하여 그 본국을 괴롭혔던 中行說이 북방민족의 이 풍속을 ‘種姓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까닭’이라고 밝힌 바 있듯이 종족보존의 의미가 강한 것이라 하겠다. 부단한 정복전쟁으로 인하여 청장년 남자의 사망률이 높았던 유목민사회에서 일종의 인적 자원의 보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비롯된 것이 취수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수혼의 풍습은 흉노뿐 아니라 고대 중국에서도 행해졌으며 고구려에도 있었고 현재 일본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시행되는 이유는 죽은 형의 재산과 어린 자식의 분리를 방지하여 가족제도를 옹호하는 데에 있다. 흉노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後母를 취하거나 형제가 죽었을 때 모두 그 아내를 妻로 삼는 풍속<sup>23)</sup>은 이러한 견지에서 설명할 수 있다.<sup>24)</sup> 이러한 취수혼은 친족집단의 분화가 진

17) 《晉書》권 97, 列傳 67, 四夷 夫餘.

18) 부여의 중심지역인 길림시 일대나 주변의 부여시기 유적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굽집시(豆)와 물동이 등 漢의 영향을 많이 받은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19) 《後漢書》권 85, 列傳 75, 東夷 夫餘國.

20) 李丙燾, 앞의 책, 223쪽.

21)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22) 盧泰敦, 〈高句麗 초기의 娶嫂婚에 관한 一考察〉(《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80~87쪽.

23) 《史記》권 110, 列傳 50, 匈奴.



전됨에 따라서 점차 소멸되어 갔는데 여기에는 漢문화의 영향도 일조를 하였던 것 같다.

한편 부여사회에서 취수혼의 존재는 바로 부여사회가 친족집단의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sup>25)</sup> 취수혼을 통해 혼인 대상인 단위족과의 친선을 유지하여 자기 부족의 존속에 도움을 받는다는 의식이 부여사회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 3) 예술—건축, 공예, 기타

부여의 물질문화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 《삼국지》 위서 동이전 부여조를 통하여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음식을 먹고 마실 때 부여인들은 조두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 東團山 등 부여의 유적에서는 굽집시(陶豆)와 물동이(罐) 등이 주로 나와 사료의 내용과 부합하고 있다. 이는 부여에서 생활용기를 만드는 공예가 매우 발달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부여의 수도에는 궁성이 있었고 그 주위는 도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전국에서 받아들인 조세·공물을 저장하는 창고와 牢獄을 비롯한 형벌기관들이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부여가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이다.<sup>27)</sup> 부여 궁성의 모습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길림시 동단산 南城子유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삼국지》동이전 부여조에 의하면 부여는 궁성을 둥글게 쌓고 감옥을 두는 것이 특색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남성자古城址를 발굴한 결과 황토흙으로 판축하여 담장을 쌓고 그 내부에 건축물을 세웠는데, 성 내부의 평면은 둥근 타원형이었다.<sup>28)</sup> 또한

24) 孫晉泰, 앞의 책, 63쪽.

25) 盧泰敦, 앞의 글, 98~10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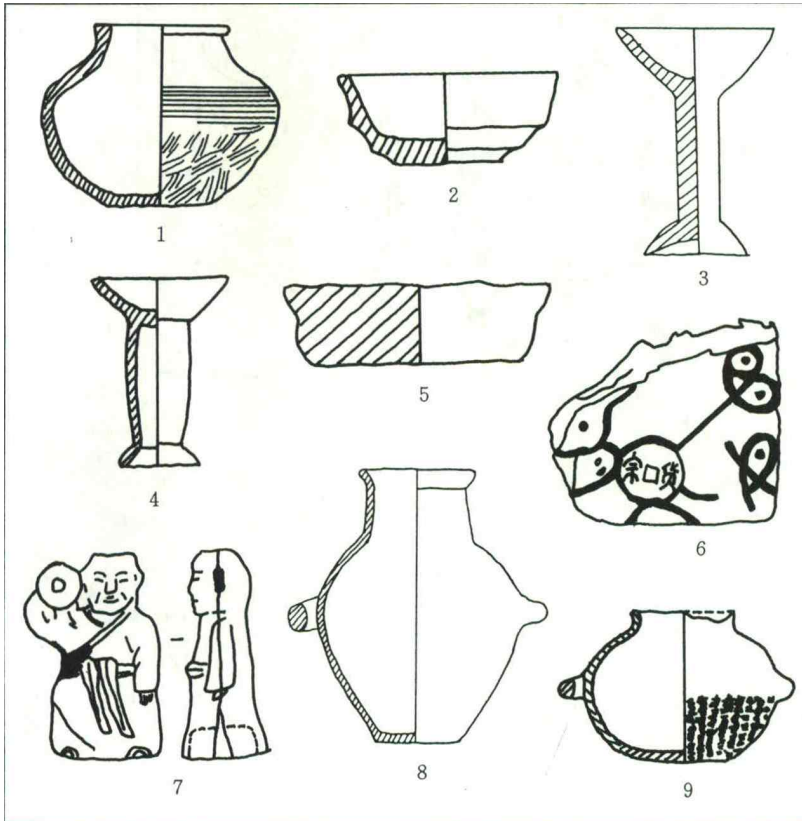
26) 嫂婚制의 풍습은 元代の 蒙古에는 물론이거니와 현재의 통구스족에도 그 유풍이 남아 있다고 한다(孫晉泰, 앞의 책, 63쪽 및 李龍範, 〈高句麗의 成長과 鐵〉, 《白山學報》1, 1966, 57쪽).

27) 盧泰敦, 〈國家의 成立과 發展〉(韓國史研究會 編, 《韓國史研究入門》, 知識産業社, 1981), 114~122쪽.

28) 董學增, 〈吉林東團山原始·漢·高句麗·渤海諸文化遺存調查簡報〉(《博物館研究》創刊號, 1972).

〈그림 11〉

한-부여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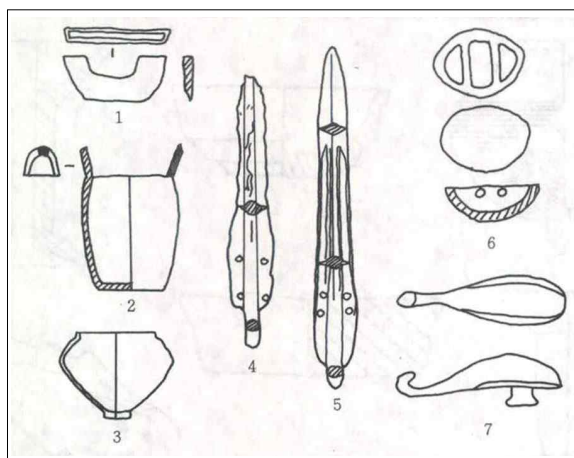


1. 繩紋陶罐, 2. 陶鉢, 3. 泥質陶豆, 4. 夾砂陶豆, 5. 陶鉢內模, 6. 貨泉印紋陶片, 7. 陶俑, 8. 夾砂陶壺, 9. 方格紋陶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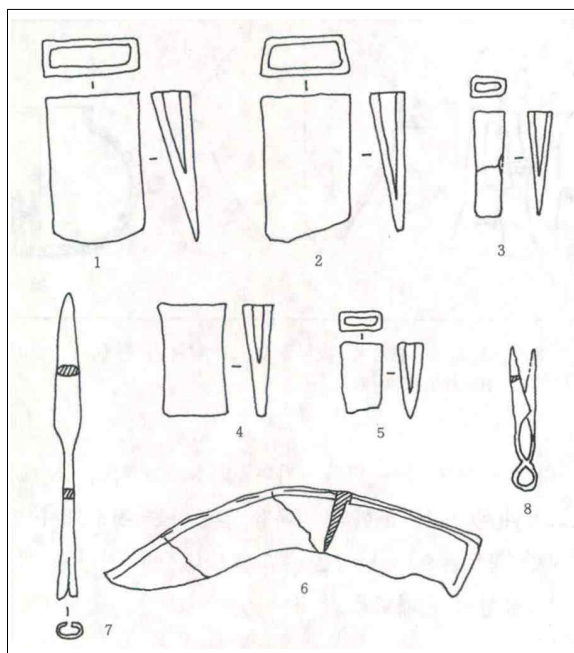
성 내부에서는 다량의 토기편과 벽돌·기와 및 銅鈴·陶俑 등 漢代 부여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sup>29)</sup> 이는 문헌의 기록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현재 그 외 양은 알 수 없지만 황토흙으로 담장을 쌓고 그 내부에 기와와 벽돌을 이용하여 大屋을 지은 궁성이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9) 馬德謙, 〈談談吉林龍潭山東團山一帶的漢代遺物〉(《北方文物》2期, 1991).

〈그림 12〉 漢一夫餘시기 靑銅器 및 鐵器



1. 銅鍬, 2. 銅鍬, 3. 銅斧, 4~5. 曲刀短類式銅劍, 6. 銅泡飾, 7. 銅帶鉤.



1~3. 鐵鍬, 4~5. 鐵鍬, 6. 鐵劍, 7. 鐵矛, 8. 鐵剪.

부여의 공예품 생산능력은 의복·무기 및 장식품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부여인들은 백색을 숭상하여 흰옷을 즐겨 입었는데 上衣와 겹옷(두루마기: 袍)·바지를 입고, 가죽신(革踏)을 신었으며 국외로 나갈 때에는 비단으로 수를 놓은 찬란한 비단옷을 입었다고 한다.<sup>30)</sup> 喪服도 남녀 모두 흰옷이었다. 그리고 북방의 추운 지역인 만큼 大人 즉 귀족들은 그 위에 여우나 이리 또는 담비 등 북방산 모직물의 덧옷을 입고 모자는 금·은으로 장식하였다고 한다.<sup>31)</sup> 이처럼 옷차림에 의한 호족과 일반민의 구분이 있었고, 아름답게 수놓은 비단과 모직물 옷들, 여우·삿·貂皮 등의 고급 모피와<sup>32)</sup> 나아가 우수한 가죽신도 제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직물생산의 수준과 제조업이 전문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금·은으로 장식한 모자와 각종 아름다운 구슬 장식품의 제작은 높은 수준의 수공업과 함께 연금술의 존재를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화살·검·창 등 각종 우수한 무기를 생산하여 집집마다 무기를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들 무기는 각자의 수제품으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당시에 무기제작은 이미 어느 정도의 전문직업으로서 분화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밖에 부여인들은 여름에 얼음을 저장하여 사용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다.

〈宋鎬最〉

30)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31) 위와 같음.

32) 서단산문화의 하나인 星屋哨유적과 한-부여시기의 유적인 東團山에서 비단이 발견되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